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정감록에 나타난 계룡산의 성지화 연구

: 권력 투쟁의 역사와 공간적 역동성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

고 마 리

정감록에 나타난 계룡산의 성지화 연구

: 권력 투쟁의 역사와 공간적 역동성

지도교수 최 종 성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

고 마 리

고마리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7월

위 원 장 김 지 현 (인)

부위원장 이 성 청 (인)

위 원 최 종 성 (인)

국문초록

본 논문은 정감록에서 차기 권력의 중심지로 예언된 계룡산의 성지화 과정에 주목했다. 왕조와 민생의 길흉화복을 골자로 하는 정감록은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하여 공간과 관련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계룡산에 대한 물리적이고 사상적인 지향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염원했던 실천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로 조선시대 반란 사건에서 계룡산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 이처럼 예언을 향유하는 주체들에게 공간에 대한 보편적인 공감대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간의 정감록 연구는 시간을 주로 다루었고, 공간은 사건의 배경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이분법을 극복하려는 '공간적 전회'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계룡산을 둘러싼 권력 투쟁의 역사 속에서 역동적인 공간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종교학과 공간적 전회 사이의 접점과 정감록에 나타나는 공간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성스러움에 대한 종교학의 논의와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사회과학의 입장을 비교한다. 우선, 공간이 비균질적이라는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다. 범속한 공간과 성스러운 공간 사이의 층위가 있듯이, 사회적 관계에 따라 공간은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여기에 권력이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두 번째 공통점이다. 성별(聖別)에 관여하는 성스러움이라는 힘은 공간적 전회가 말하는 정치, 계급, 경제와 같은 세속적인 권력과 유사하게 기능한다. 이러한 관점을 정감록에 적용하여 예언에 등장하는 공간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계룡산과 같이 후속 왕조의 도읍지인 신왕토(新王土) 형, 말년의 변란을 피해 몸을 보신할 십승지(十勝地) 형, 십승지의 확장판인 피장처(避藏處) 형, 망국의 징조가 발생하는 흉지(兇地) 형의 분포와 특징을 정리했다. 다시 길함과 부정함, 국운과 민생을 기준으로 비교하며 분석을 심화했다. 그러나 왕조교체라는 예언의 서사 속에서

조선 왕조와 경쟁하는 힘을 반영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정감록의 전개와 역사적 투쟁이 공간을 중심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유추한다.

이중 계룡산은 한양을 대체하는 공간으로서 반왕조적인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먼저, 조선시대 반란 사건을 통해 물리적인 투쟁에서 공간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정감록 사건의 전형인 '정여립 모반 사건(1589)'을 분석하여, 권력 찬탈의 전략으로 계룡산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주도자가 정씨임을 강조함으로써 공간의 권위에 의탁하고 있었다. 이후의 반란 사건 역시 신왕토와 정씨라는 모티프를 모방하여 왕권 획득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있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정씨를 강조하는 모티프의 변용이 눈에 띄는데, 이것을 정씨의 땅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된 결과로 해석했다. 기록된 투쟁과 함께, 설화를 통해 기억된 공간 다툼을 발견했다. 특히 태조와 흥선대원군의 계룡산 천도 시도와 실패를 설명하는 설화의 내러티브에서 정감록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여기에서는 예언을 인용하여 왕실 권력에 밀리지 않는 공간의 잠재력을 재생산하고 있었다. 공간의 부각은 조선 왕실의 정감록 대응 방식의 변화로도 나타났다. 교화주의를 내세운 정조 대와 달리, 조선말에는 정감록을 불태우고 계룡산 출입을 금하였다. 계룡산으로의 천도 시도 등 공간을 압도함으로써 반왕조적 힘을 억누르려 했던 것이다.

계룡산과 중앙의 힘겨루기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조선의 멸망으로 실증된 정감록 예언은 국가 부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책으로 신비화되었다.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계룡산으로의 이주가 진행되면서 민족적 염원과 종교적 신앙이 결합되었다. 신도안 종교촌을 구성하는 신종교들은 교주를 정씨와 동일시함으로써 계룡산의 힘을 빌려 교단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종교적 권력에 대한 지향은 구암(龜菴) 김연국(金演局)과 시천교의 집단 이주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교단 내의 경쟁에서 시천교가 승리하고, 미래의

지상천국을 대비하려는 목적을 확인했다. 또한 후천개벽사상을 따르는 증산교와의 사상적 차이에서 신도안을 선택한 동기를 유추하고, 권력 공간으로서 계룡산에 대한 인식이 종교촌의 다양한 계통 구성의 배경임을 살펴봤다. 공간의 구심력은 중앙 정부와의 여전한 투쟁을 통해 드러났다. 조선총독부는 어용학자와 언론을 동원하여 종교촌을 미신 취락으로 폄하하였고, 해방 이후에는 6·20 사업으로 해체되기까지 종교촌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사회정화사업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신도안으로 돌아오거나 계룡산 주봉에 근접하려는 종교집단의 의지에서 성지 계룡산의 구심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계룡산이 정치적 권력의 중심지이자 종교적 성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사회 주체들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직접적인 힘의 충돌이나 사상의 격돌을 야기했던 계룡산은 투쟁의 과정에서 특정 의미를 누적해 나갔다. 본 논문은 공간의 역동성에 주목하여 성스러움의 이면에 작용하는 다양한 힘의 관계를 포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감록 연구의 성과를 공간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한국의 예언·비결에 관한 연구뿐 아니라, 종교학이 연구 대상으로 삼는 공간의 범위를 확장하는 작업이 후속 과제가 될 것이다.

주요어 : 정감록, 계룡산, 성지화, 공간적 전회, 권력 투쟁, 공간적 역동성
학 번 : 2020-23156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 목적 ····· 1

2. 선행 연구 ····· 4

3. 연구 자료 및 방법 ····· 7

4. 연구 내용 및 구성 ····· 9

Ⅱ. 공간 연구의 전개와 정감록의 공간론 ····· 12

1. 공간 연구에서 권력의 문제 ····· 12

1) 성스러운 공간에 대하여 ····· 12

2) 사회과학적 공간 연구에서의 역동성과 권력 ····· 16

2. 네 가지 유형으로 본 정감록의 공간론 ····· 20

1) 신왕토(新王土) 유형 ····· 24

2) 십승지(十勝地) 유형 ····· 27

3) 피장처(避藏處) 유형 ····· 29

4) 흉지(兇地) 유형 ····· 30

5) 공간 유형 비교 ····· 31

Ⅲ. 계룡산에 투영된 권력 투쟁과 그 역사 ····· 36

1. 반(反)왕조 사건으로 본 물리적 투쟁 ····· 36

1) 정감록 사건의 전형, 정여립 모반 사건(1589) ····· 37

2) 모티프의 모방과 변용 ····· 40

2. 공간에 대한 기억과 서사적 투쟁 ····· 45

1) 태조 이성계의 계룡산 신도 공사 ····· 46

2) 조선시대 정감록 대응과 흥선대원군의 계룡이도설 ····· 51

Ⅳ. 권력지향적인 신종교 중심지로서 계룡산 ····· 60
1. 신도안 종교촌의 형성으로 본 권력 공간 ····· 60
1) 신도안 종교촌의 발생 배경 ····· 60
2) 종교촌 구성과 계룡산의 구심력 ····· 64

2. 시천교의 유입과 종교촌 해체로 본 권력 투쟁의 여운 69
1) 시천교의 신도안 입성: 권력지향적인 중심지 전략 ····· 69
2) 반복되는 역사: 중앙 권력과의 경쟁 ····· 74

Ⅴ. 결론 ····· 82

참고문헌 ····· 86
Abstract ····· 90

표 목 차

[표 1] 정감록 공간의 네 유형과 지명 ····· 22
[표 2] 지맥의 흐름과 왕조교체 ····· 25
[표 3] 공간 유형 비교 1 - 길함/부정함 ····· 32
[표 4] 공간 유형 비교 2 - 국운/민생 ····· 33
[표 5] 정감록에 나타난 공간의 대립 구도 ····· 35
[표 6] 신도안 종교계통구성 내역(1935년~1984년) ····· 64
[표 7] 시천교와 증산교의 사상과 중심지 풍경의 비교 ··· 73

그 림 목 차

[그림 1] 정감록 공간의 분포 ····· 23

Ⅰ. 서론

1. 연구 목적

본 논문은 정감록[1]에서 정씨 왕조의 도읍지로 예언된 계룡산의 성지화(聖地化) 과정을, 권력 투쟁의 역사 속에서 증명되는 공간의 역동성에 주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민간에 성행했던 정감록은 국운과 민생의 길흉화복을 골자로 한다. 텍스트로서『정감록』이 관찬사료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1739년 영조 대이고, 20세기에 정본화를 거쳐 현전하는『정감록』이 완성되었다. 그래서「감결(鑑訣)」을 포함하는 정감록의 하위 비결서들은 판본마다 상이한 지점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정감록이 문헌의 형태를 갖추기 전부터 구전의 과정 속에서 여러 예언 간의 습합을 거쳐 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다양한 이본들이 같은 제목으로 편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당대인들이 정감록이라고 인식하는 주제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바로 이씨가 망하고 정씨가 흥기할 것이라는 '이망정흥설', 새로운 왕조를 개창할 정씨 진인이 나타날 것이라는 '진인출현설', 그가 바다 건너에서 군사를 이끌고 올 것이라는 '해도기병설'이 예언의 핵심 내용이다.[2] 여기에는 당쟁과 신분 질서의 붕괴 등으로 촉발된 당시 민중들의 원망(願望), 즉 왕조교체에 대한 염원이 반영되어 있다. 반(反)왕조적인 예언이 민중들 사이

---

1) 본 논문은 정감록을 사상과 문헌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텍스트로서의 정감록을 지칭할 때는 겹낫표를 사용하여『정감록』으로 표기한다. 한편,『정감록』에는 협의의 의미와 광의의 의미가 있다. 협의의『정감록』은「감결」만을 원류로 보는 것이고, 광의의『정감록』은 그 외의 유사한 형식과 내용을 담은 비결서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김수산, 이동민 편,『鄭鑑錄』(서울: 명문당, 1968), 24-25.)

2) 이종필,「정감록과 조선 후기 하위주체들의 저항적 연대」,『우리문학연구』62 (2019): 31.

에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조직화되었고, 예언의 구절들이 조선시대 반란 사건에 인용되었다. '정여립 모반 사건(1859)'을 기점으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예언을 실현하고자 했던 실천들이 반복되었다. 이 시기의 문화사는 정감록을 근거로 새로운 권력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역모 세력과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기존 세력의 힘겨루기라고 요약할 수 있다. 체제변혁적인 실천에 동원되었던 예언의 요소들 중, 정씨 왕조의 중심지인 계룡산은 정감록의 상상력이 응집된 공간이다. 물리적으로는 조선의 왕도인 한양과 대립함으로써 권력의 주체들, 즉 정씨와 이씨 사이에 긴장감을 조성했다. 중앙과 대립하는 계룡산에 대한 추종은 시대와 주체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공간에 누적된 힘을 가지고자 했던 동기의 유사함을 보인다. 본 논문은 계룡산의 성별(聖別)이 권력과 관계되어 있으며, 투쟁이라는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은 20세기 '공간적 전회'(spatial turn)와 "시간과 공간의 이분법 해소"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계몽주의와 의식철학으로 대표되는 서구 근대 사상은 시간과 공간을 차등적으로 다루었다. 시간은 정치, 역동, 남성 등 우월하고 긍정적인 것들의 기호로 사용된 반면, 공간은 시간에 대척점에 있는 것들의 집합으로 치부되었다. 이러한 불균형은 공간을 공허하고 수동적인 컨테이너로 만들면서 학술적 연구의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말았다. 공간적 전회는 이러한 이분법을 극복하고 공간 연구의 필요성을 회복하고자 등장했다. 1970년대 마르크주의자들이 공간과 계급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공간이 사회적 불평등을 생산하고 유지한다는 통찰을 통해 저항과 변혁 역시 일상적인 공간에서 달성된다고 주장했다. 공간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분석하려던 이들의 움직임은 1980년대에 이르러 공간도 사회의 작동과 변화 방식에 차이를 만든다는 사상으로 발전했다.[3] 덕분에 역사적 배경에 불과했던 공간은 사회적 생산물이자 생산자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간의 정감록 연구에서도 공간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부족한 측면이 있

3) Kim Knott, *The Location of Religion* (London: Routledge, 2005), 116.

다. 정감록은 ‘언제’ 조선 왕조가 몰락하고 새로운 왕씨(王氏)[4]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새로운 왕조의 중심지와 망국의 징조를 피해 몸을 보신할 곳이 ‘어디에’ 있는지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조선 망국의 시기나 정감록의 저작 연대를 추측하는 작업이 주로 이루어졌다. 불운한 징조를 나열하며 정씨 등장의 시기를 넌지시 암시하고 있는 예언의 특성상, 조선 왕조의 위기설은 100년+α 단위로 다양화되었다.[5] 시간의 모호성과 달리, 정감록은 실존하는 지명을 사용하여 공간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예언의 맥락에서 공간의 역할과 기능을 일종의 매뉴얼처럼 제공하고 있다. 이씨 왕조를 대신할 도읍지인 계룡산, 조선말 병란으로부터 은신할 수 있는 십승지가 대표적이다. 조선시대 반란과 피난은 이러한 공간 지침을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당대인들이 공간에 대한 예언에 감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천이 정감록과 계룡산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고, 성스러운 힘이 다시 구심력을 발휘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감록 연구에서 공간의 논의 필요성을 재고하며, 계룡산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권력 투쟁이 성지화의 요인이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표면적으로 다뤄졌던 공간을 조명하여 기존의 정감록 연구를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계룡산을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 주제를 종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연대, 사건, 인물 등 개별적으로 다뤄졌던 주제들을 공간과 권력 투쟁의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성스러운 공간에 대한 종교학 연구를 확장하고, 정치적 권력 등 세속적인 요소와의 접점을 발견하려 한다. 종교와 종교가 위치한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 사이의 상호작용을 파악하여 종교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6] 계룡산은 종교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성스러움을 형성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분석될 것이다. 이 과

4) 이 때의 왕씨(王氏)는 고려 왕씨와 같은 특정 성씨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성씨든 왕의 권위를 누리고 새로운 왕조의 주인이 될 잠재력을 가진 성씨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한다.
5) 최종성, 「정감록 백년왕국론과 조선후기 위기설」, 『역사민속학』 61 (2021): 7-36.
6) Knott, *The Location of Religion*, 1.

정에서 변화의 결과이자 주체가 되는 공간의 역동성에 대해 고찰하려 한다.

2. 선행 연구

1) 정감록의 공간 연구

정감록에서 공간에 주목했던 선행 연구는 지리학 분야의 성과가 대부분이다.[7] 계룡산과 십승지 등에 대한 지리적 분석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의 구성과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과 관련된 역사, 종교, 문화에 대한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사상적 측면에서 정감록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나, 객관적인 정보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예언에 나타나는 공간이 가진 의미를 깊이 탐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종교학적인 연구에서는 황선명의 작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황선명은 최남선이 제안한 '남조선신앙' 개념[8]에서 출발하여 진인출현설을 함축하고 있는 정감록의 공간을 조명했다.[9] 남조선신앙은 십승지가 한반도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데, 황선명은 이 점에 주목하여 정감록 신앙의 형성과 확산을 설명하려 했다. 또한 공간에 대한 인식을 배경으로 정감록의 사상과 민중운동에의 영향을 망라하고 있다. 후속 작업에서는 공간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우선, 공간에 반

---

7) 다음의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최원회, 성정락, 「계룡산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 및 경관연구」, 『한국지리학회지』 8 (2019): 261-287., 최원회, 이근화, 「계룡산 신도안 종교촌의 변천 및 종교구성 연구」, 『한국지리학회지』 8 (2019): 235-259., 주경식, 「계룡산 신도안의 지리적 현황」, 『지리학』 19 (1984): 72-88., 최원회, 이근화, 성정락, 「계룡산 풍수지리의 특성 개관: 산지풍수 연구의 관점에서」, 『한국지리학회지』 7 (2018): 337-362.

8) 최남선은 남조선신앙을 "주관적, 관념적인 산물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의 충동에 의해 자연히 성립된 신앙이며, 미완의 가변동적(可變動的)인 것으로 언제나 필요한 수정과 보충을 더할 수 있으며, 진보적인 형태로 민족 운명의 판결을 의미하는 신앙"이라고 정의한다. (최남선, 『조선상식문답』, 이영화 옮김 (파주: 경인문화사, 2013), 162-165.)

9) 황선명, 『조선조종교사회사연구』 (서울: 일지사, 1985).

영된 무의식적인 관념에 대한 연구가 있다. 여기에서는 십승지를 성지에 유비하고 있다. 황선명은 십승지를 성지 유형 중 디아스포라(diaspora)형과 네이티브(native)형의 절충된 형태로 이해한다.[10] 그러면서 십승지를 문화의 맥락 속에서 민중의 정서적 공간에 자리한 심의 현상의 하나로 분석했다. 음양 원리, 낙원 사상, 성역(asylum)의 측면, 운수 사상, 문화 중심으로서의 낙원 국토 개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다른 연구에서는 십승지사상을 전통불교와 풍수지리사상 및 도참사상과 연결하여 분석했다. 특히 '복전'(福田, punya-ksetra)사상이 십승지사상의 근간이라고 이해하며 한국 종교를 이해하는 주요한 문화로 이해했다.[11]

이러한 작업은 조선시대 민중의 이상향에 대한 사상적인 근원에 대해 다방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공간을 통해 한국 종교와 전통 사상을 설명하는 작업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신앙에서 출발한 그의 연구는 십승지에 집중되어 있어, 정감록의 공간을 모두 포함하지는 못했다. 또한 성지 개념이나 관련 사상을 면밀히 분석하기보다는 다양한 요인과의 관계를 제시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계룡산에 주목하여 역사와 민중운동을 권력 투쟁이라는 키워드로 종합하는 작업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반면, 한승훈은 「전근대 한국의 메시아니즘」에서 조선 후기 진인출현설과 계룡산 중심의 공간적 전략에 대해 밝히고 있다.[12] 민생을 구원할 정씨 진인에 대한 염원을 한국의 메시아니즘으로 본 한승훈은 사상과 공간의 연관성을 보다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는 메시아니즘이 가진 현실 변혁의 열망이 특정 공간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동기가 되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공간에서 사회적 관계를 발견하려는 본 논문과 유사한 관점을 취한다. 다만, 한승훈의 연구는 '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비해 공간이 가진 능동적인 역할이나 효과에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다. 메시아니즘이라는 사상

10) 황선명, 「십승지 고」, 『종교와 문화』 5 (1999): 157-171.
11) 황선명, 「복전 사상을 통해 본 한국 종교문화의 특질」, 『종교와 문화』 3 (1997): 205-216.
12) 한승훈, 「전근대 한국의 메시아니즘: 조선 후기 진인출현설(眞人出現說)의 형태들과 그 공간적 전략」, 『종교와 문화』 27 (2014): 27-55.

적 관심과 진인출현설의 역사적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감록의 공간을 다룬 선행 연구들은 예언과 조선 사회의 상황, 민중의 염원을 종합할 수 있는 요소로서 공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정감록에 나오는 공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 요인과 공간의 관계를 다루는 과정에서 공간을 수동적인 배경이나 결과물로 다루고 있다는 한계가 발견된다. 본 연구는 정감록에 언급되는 공간을 구조화하고, 권력 다툼에 주목하여 계룡산이 성스러운 공간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정감록 연구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2) 정감록 관련 역사적 사건

역사학을 중심으로 시간과 역사성에 대한 주목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정감록 사건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정씨 진인을 내세워 조선을 멸망시키려 했던 역모 사건이 자세히 다루어졌다. 한승훈은 추국 자료를 통해 조선 후기 변란의 역사를 종교학적 관점에서 정리했다.[13] 김탁은 정감록을 기반으로 삼은 역모 사건을 역사학적으로 분석하며 그 의의를 밝혔다.[14] 특히 그의『조선의 예언사상』은 당대에 발생했던 변란 사건을 총망라하며, 역사적 기록에서 발견되는 사상적 동기를 분석하고 있다.[15] 김우철 역시 조선 후기 변란에서 정씨 진인에 대한 사상적 배경에 주목하며, 진인출현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다루었다.[16]

민중운동과 종교운동에 관한 선행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고성훈은 진인이 바다의 섬에서 군사를 일으킬 것이라는 해도기병설의 사회적 배경과 실제 변란 사건의 관계를 다루었다.[17] 또한 정감록을 민중운동의 사상적 배경

---

13) 한승훈,「조선 후기 변란의 종교사 연구: 추국 자료로 본 반란과 혁세 종교」(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9).
14) 김탁,「정감록 출현의 역사적 과정과 의의」,『충청문화연구』20 (2018): 5-42.
15) 김탁,『조선의 예언사상』上, 下 (파주: 북코리아, 2016).
16) 김우철,「조선 후기 변란에서의 정씨(鄭氏) 진인(眞人) 수용 과정 -『정감록(鄭鑑錄)』탄생의 역사적 배경」,『조선시대사학보』60 (2012): 71-104.
17) 고성훈,「조선 후기 '해도기병설(海島起兵說)' 관련 변란의 추이와 성격」,『조선시

으로 보고, 민중 의식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시기별, 왕대별 민중운동의 사례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18] 정진혁의 연구는 조선 후기 체제개혁을 요구하는 정감록 조직을 통해 민중운동의 발전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19] 나아가 계룡산 신도안 종교촌을 다룬 연구에서 이씨 왕조 멸망 이후의 지속되는 계룡산의 상징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신도안 종교촌 형성의 시초로 여겨지는 시천교 이주와 관련된 연구들은 정감록과 계룡산의 구심력을 짐작하게 해 준다.[20] 민중운동과 종교운동이 얽혀 있는 가운데, 계룡산에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권력이 혼합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정감록 관련 역사적 사건을 다룬 선행 연구들은 물리적인 권력 투쟁의 사례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하지만 이들은 역사적이고 사상적인 차원에 국한하여 사건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은 사건의 배경으로만 논의되기도 한다. 본 논문은 계룡산을 중심으로 정감록 관련 사건들을 재구성할 것이다. 시대를 관통하는 유사한 형태와 목적을 가진 사건들이 계룡산을 변혁적인 권력의 중심지로 만들었다는 것을 논증하여 선행 연구를 보완하고자 한다.

3. 연구 자료 및 방법

우선, 문헌 형태의 정감록을 1차 자료로 삼아 예언의 내용과 공간의 특징을 파악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자료(奎7568)인 『비결집록(秘訣輯錄)』을 원자료로 채택하였다. 『비결집록』은

대사학보』 3 (1997): 129-162.

18) 고성훈, 「조선 후기 민중사상과 鄭鑑錄의 기능」, 『역사민속학』 47 (2015): 113-146.

19) 정진혁, 「조선 후기 정감록 결사조직과 변혁운동」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17).

20) 허남진, 「한국 신종교 성지의 양상과 특징」, 『한국종교』 42 (2017): 173-201., 조규태, 「김천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 김산·개령·지례를 중심으로」, 『동학학보』 41 (2016): 7-39.

정감록의 여러 필사본의 기초자료이기 때문이다. 1923년 출판된 호소이 하지메(細井肇)의『鄭鑑錄』은 간행본 중 출간 시기가 가장 앞서는 일종의 정본으로 자리 잡았다.『비결집록』은 호소이 하지메가 저본으로 활용한 만큼 정감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감결」등 24편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타 이본 자료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비결집록』은 필자가 표점 및 교감 작업에 참여하여, 원자료 중에서 이해도나 활용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이점이 있다. 호소이 하지메 이후에 필사본을 출간했던 김용주, 야나기타 분지로(柳田文治郎), 현병주의 이본자료와 교감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천자료를 발전시키는 작업의 일종으로『비결집록』을 통해 예언과 공간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권력 투쟁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 역사적 사료를 활용할 것이다. 조선 왕실과의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투쟁은 역모 사건을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을 근거로 파악할 것이다. 관찬사료를 통해 사건의 전말과 왕실의 대응방식을 포착할 수 있다. 다만, 역사적 사실을 수집하기보다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하려 한다. 정감록 사건의 연대가 붕당정치의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역사의 왜곡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위함이다.「선조실록」처럼 당쟁에 연루되어 후대에 수정되는 일 외에도, 억울하게 고변을 당하거나 과도한 심문으로 인해 허위로 자백한 것이 기록으로 남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왕실이 역모 사건의 배후를 설명하는 방식과 당권을 회복하는 사상적인 도구로서의 예언과 공간의 역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연쇄적인 반란 모의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모티프를 분석하고, 계룡산이 권력 투쟁에서 갖는 중요도가 어떠했는지 밝히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반면, 실질적인 무력 경쟁과 상호작용했던 서사적 투쟁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화적 자료를 사용한다. 기사본말체(紀事本末體)로 서술된『연려실기술』를 비롯하여 후대에 전해지는 정감록 관련 설화를 인용할 것이다. 특히 계룡산 설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읍지 관련 이야기는 왕권을 위협하는 공

간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유용한 근거가 될 것이다. 공간 관련 설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읍지 관련 설화에 특히 주목한다. 태조와 흥선대원군의 계룡산 천도 실패에 대한 민중의 설명방식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기억되고 전승되는 공간의 상징을 확인하여 성지화의 요소로 다루고자 한다. 근현대로 이어지는 설화의 생명력을 발견한다면, 물리적 경쟁만큼 중요한 내러티브의 작동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용학자들의 저술과 언론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이각종,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등의 저술을 참고하여, 신도안 종교촌에 대한 공격을 통해 민족운동으로의 발전을 저지하려던 조선총독부의 목적을 읽고자 한다. 또한 동아일보에서 연재한 「계룡산기」의 기사 속에서 계룡산에 대한 중앙의 인식과 비판적 어조를 발견하려 한다. 공간이 대표하는 종교적 믿음과 민족적 염원을 해체하기 위해 어떤 사상적인 압박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봄으로써, 조선시대의 투쟁 양상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저작이 신도안 종교촌과 정감록신앙에 대한 폄하를 목적으로 출판되었고, 실제로 일부 신종교집단이 사회 문제를 일으킨 사실을 반영하기도 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종교촌의 형성이 정감록신앙의 영향을 받았고, 민족적 차원에서 계룡산을 지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단서로 활용하고자 한다.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공간에 대한 조직화가 이루어졌으나, 저변에 있는 정감록 모티프들의 작동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4. 연구 구성 및 내용

전체 글의 구성은 4장의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Ⅱ장에서는 공간과 권력의 문제를 살펴보고, 네 가지 유형으로 정감록의 공간을 분류하여 연구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종교학과 공간적 전회가 공유하는 역동적인 공간에 대한 논의를 개괄한다. 계룡산을 둘러싼 역사적 투쟁을 설명할 수

있는 학제 간 접점을 발견하는 것이 Ⅱ장의 목적이다. 각 학문의 주요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서구 근대 사상이 만들어 낸 시간과 공간의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들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역동적인 공간의 성질과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정감록에 등장하는 공간들을 유형화하여 구조적인 이해를 도모하려 한다. 「감결」을 비롯한 『비결집록』에 등장하는 공간을 네 유형으로 분류하여, 예언의 서사 속에서 공간적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왕조교체의 잠재적인 권력이 공간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설명하려 한다.

Ⅲ장에서는 조선시대에 발생한 권력 투쟁의 역사를 통해 성지로서의 계룡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공간을 둘러싼 지배력 다툼을 물리적인 측면과 서사적인 측면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역모 세력과 조선 왕실과의 직접적인 충돌로,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정감록 사건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최초의 정감록 사건으로 여겨지는 정여립 모반 사건에 사용된 모티프를 확인하고, 이어지는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모방되고 변용되는지 살펴본다. 이때 반란 세력이 활용하는 상징과 왕실이 인지하는 위협의 중심에 계룡산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어서 무력 경쟁만큼 치열했던 내러티브 투쟁에 대해 다룬다. 특히 조선초와 조선말의 도읍지 관련 설화에서 왕실과 계룡산의 긴장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합리적인 이유로 계룡산 천도 실패를 설명한 관찬사료와 구분되는 민중의 기억을 대조적으로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조선 중기의 정감록 대응 방식과 대조되는 조선말의 양상을 비교하여, 지배력을 둘러싼 심화된 갈등을 탐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계룡산 신도안 종교촌의 형성과 해체의 중심에서 작동하는 권력과 투쟁의 양상을 다룬다. 일제강점기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 새로운 시대의 중심지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어 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해방이라는 민족적 염원이 종교적 신비화를 거쳐 공간이 가진 힘을 다양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김연국이 이끄는 시천교의 집단 이주를 대표적인 사례로 살펴봄으로써, 종교촌 형성의 이면에 작동하는 권력지향성을 도출할 것이다. 같은 동학계 신종교인 증산교와의 비교를 통해 공간의 선택

이 사상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가능성을 탐구해 보려 한다. 또한 일제강점기와 1970년대 시작된 사회정화사업으로 인해 종교촌이 해체되어 가는 과정에서 중앙과 계룡산의 투쟁이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공간에 누적된 권력 관계가 일상 공간과 구분되는 성지를 생산한다는 본 논문의 논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Ⅱ. 공간 연구의 전개와 정감록의 공간론

1. 공간 연구에서 권력의 문제

1) 성스러운 공간에 대하여

공간은 종교학의 토대를 이루는 성스러움의 여러 상징들 중 하나로 논의되어 왔다. 성스러움은 일상적인 공간과 종교적인 공간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그러므로 종교학은 공간이 기본적으로 균질적이지 않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미르체아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이러한 공간의 층위를 성(聖, the sacred)과 속(俗, the profane)의 대립으로 설명한다.

엘리아데가 말하는 성스러움은 기본적으로 속과 대립하며[21], 인간이 아닌 초월적인 것이다.[22] 이러한 성스러움은 모든 것에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 형태를 통해 성스러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성스러움이 경험될 수 있도록 드러나는 성질을 '성현'(hierophany)이라고 설명한다. 성현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돌과 바위 같은 자연물이 대표적이다. 고대 종교인들이 숭배하던 대상은 본래 범속한 것이었다가 성현으로 인식되면서 존재론적인 변화를 겪은 결과이다. 이러한 성과 속의 변증법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엘리아데는 모든 존재는 신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성스러움을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23] 이것은 인간이 성스러움을 지향하고 성현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것이 신의 완전함을 반영하는

---

21) 미르체아 엘리아데(Mircea Eliade), 『종교형태론』, 이은봉 옮김 (서울: 한길사, 1996), 46.
22) 미르체아 엘리아데(Mircea Eliade), 『신화, 꿈, 신비』, 강응섭 옮김 (서울: 숲, 2006), 18.
23) 미르체아 엘리아데(Mircea Eliade), 『성과 속』, 이은봉 옮김 (서울: 한길사, 1998), 121.

모든 존재의 본보기, 즉 전범(典範)이기 때문이다.[24] 성스러움에 대한 지향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끌림이라고 볼 수 있다.

엘리아데의 성스러움 개념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공간을 잠재적인 성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때 성스러운 공간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은 '세계산'이다. 산은 세계창조의 중심지로 여겨지면서 '세계축'(axis mundi) 혹은 세계의 배꼽으로 인식되었다. 산은 기둥, 사다리의 형상과 동일시되는데, 이것은 천상계와 지상계를 연결하는 성스러움의 통로 혹은 출구로 신성시되었다.[25] 중심지로서 성스러운 산은 인간에게 고정점을 부여하며 특정한 방향성을 추구하게 한다. 인간은 세계축을 중심으로 신성한 창조의 질서를 세우고자 한다. 그래서 인간은 땅을 점령하거나 정주함으로써 우주창조의 의례적인 반복을 통해 공간을 정화하고 질서를 부여한다. 고대 국가나 큰 도시는 모두 상징적인 세계축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이다. 기둥, 나무, 산 등 상승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세계창조의 완전함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성스러운 중심지는 항상 전체적이고 조직된 세계, 즉 코스모스 안에서 살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26] 그러므로 성스러운 공간은 존재에 대한 갈망, 실재에 참여하는 갈망, 힘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갈망을 담고 있다.[27]

성스러운 공간에 힘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게라르두스 반 델 레에우(Gerardus van der Leeuw)의 공간관과 접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신을 '종교의 객체'로, 인간을 '종교의 주체'라고 명명하고 이 둘의 만남을 종교현상이라고 보았다. 주체와 객체의 관계 속에서 성스러움이 '외적행위'와 '내적행위'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중에서 성스러운 공간은 외적행위에 속한다. 종교현상이 성스러운 힘의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에 반 델 레에우에게도 공간은 비균질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힘은 어떤 공간을 독특하게 만들고 다른 공간과 구별되게, 즉 성스럽게 만들기 때문이다.[28] 이것은 반대로 생

24) 엘리아데, 『신화, 꿈, 신비』, 18.
25) 엘리아데, 『성과 속』, 59.
26) 엘리아데, 『성과 속』, 71.
27) 엘리아데, 『성과 속』, 50.

각하면 성별된 공간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반 델 레에우는 성스러운 공간에서 감지되는 힘의 효과를 지적했다.[29] 고대인들은 자신의 힘의 중심을 공간에서 찾으려고 했다. 여기에는 신전뿐만 아니라 집, 마을 등을 힘의 근원으로 생각했다.[30] 성스러운 힘을 가진 공간은 고향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인간을 응집하는 구심력을 갖게 된다. 엘리아데와 마찬가지로 이 힘은 구원에 대한 갈망을 반영한다. 예배, 순례, 심지어 이민과 이주를 추동하는 힘이기도 하다.[31] 인간은 재산과 번영, 욕망의 성취, 죄와 소멸, 신성한 세계로의 입성, 영원한 행복 등 인간이 소망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것을 기대하며 공간을 향유한다.

공간이 가진 힘과 구원에 대한 욕구는 공간의 우주론적 사고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엘리아데와의 접점이 강화된다. 힘의 중심지로서 성스러운 공간은 신의 거처로, 완벽한 질서로 운영되는 '완전히 다른 세계'이다. 우주 창조의 질서가 내재하는 성현의 개념과 유사한 공간 인식이다. 나아가 반 델 레에우는 성스러운 공간이 우주의 법칙과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2] 그래서 성스러운 공간은 방위설정(orientation)을 통해 코스모스를 재현하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두 종교현상학자가 말하는 성스러움은 신의 세계창조라는 원형을 전제함으로써 성스러운 공간에 대한 우주론적인 접근을 보여준다. 엘리아데는 성스러운 공간이 이미 주어져 있고 인간에 의해 발견되는 것으로 보면서, 이것을 성스러운 공간의 '계시'라고 표현했다.[33] 성현을 수동적으로 경험하기보다 성스러움에 영향을 주는 인간의 능동성을 보여준 것은 조나단 스미스(Jonathan Smith)였다. 그는 신만이 공간을 성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

28) Gerardus van der Leeuw, *Religion in Essence and Manifest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393.
29) Van der Leeuw, *Religion in Essence and Manifestation,* 400.
30) Van der Leeuw, *Religion in Essence and Manifestation,* 394.
31) Van der Leeuw, *Religion in Essence and Manifestation,* 401.
32) Van der Leeuw, *Religion in Essence and Manifestation,* 399.
33) 엘리아데, 『성과 속』, 56., Van der Leeuw, *Religion in Essence and Manifestation,* 393-394.

성스러운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스미스에게서 성스러운 공간은 인간이 그것을 성지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스미스는 종교의례가 성스러운 공간을 소비하기만 하지 않고 공간을 생산하기도 한다는 관점을 제안한다.

> 의례는 "성스러움"의 표현이거나 반응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의례에 의해서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성스러워지는 것이다...신과 인간, 성스러움과 속됨은 변환적인(transitive) 범주이다. 그것들은 지도(map)와 이름표(label)로 기능하는 것이지 실체(substance)가 아니다.[34]

나아가 스미스는 성과 속의 문제는 상황적(situational) 범주이기 때문에 성스러움을 얻는 곳에 '자리 잡기'(emplacement)가 중요하다는 것을 화두로 내세웠다.[35] 스미스의 관점은 성스러운 공간의 생산자로서 인간을 주목하게 하는 동시에, 의례라는 종교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공간 생산의 다양한 활동을 논의할 수 있게 한다. 그 결과, 공간의 사회정치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성이 보다 강조될 수 있었다. 스미스는 일례로 도시가 사회정치적 의미의 반영물이라고 제시한다.[36] 도시 간의 경계를 설정해 주는 성벽은 공간 사이에 위계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세속적인 공간에서 힘의 문제를 다루는 스미스는 우주론적인 성스러움을 보완하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 기독교의 성지 역시 단순히 성스러움의 드러남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스미스는 '거룩한 자리'는 성현처럼 순수하게 종교적인 배경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문제는 권력, 그중에서도 황제의 비호를 받는 니케아공의회라는 정치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37] 스미스와 같이 성스러움의 생산자로서 인간 활동에 주목한 연구들 역시 성지를 "필연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기타 '세속적인' 힘과 얽

34) 조나단 스미스(Jonathan Smith), 『자리잡기』, 방원일 옮김 (서울: 이학사, 2009), 215.
35) 스미스, 『자리잡기』, 212.
36) 스미스, 『자리잡기』, 113.
37) 스미스, 『자리잡기』, 157.

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38]

공간에 대한 종교학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공간은 균질적이지 않다. 이것은 공간 간에 층위가 존재하며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차이를 전제한다. 종교학자들은 일상의 공간과 다른 종교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 성스러움이라고 본 것이다. 공간이 저마다의 의미를 가지고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학술적인 연구에서 공간을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해 준다. 또한, 공간의 성별이 성스러움이라는 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비록 엘리아데와 스미스로 대표되는 성스러움의 두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신성에서 발원하거나 인간 사회의 권력과 연관되어 있더라도 공간에는 특정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데에는 뜻을 모으고 있다. 공간에서 신을 발견하는 것 외에도 사회, 문화, 정치를 아우르는 다른 요소와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공간을 다룸으로써 종교학의 연구 주제로 포섭할 수 있다. 모든 존재가 잠재적인 성현이라는 엘리아데의 주장처럼 종교가 발견되지 않는 곳은 없게 된 것이다.[39] 이러한 종교학의 논의를 염두에 두고, 공간의 비균질성과 힘의 작용에 주목하여 공간적 전회와의 접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2) 사회과학적 공간 연구에서의 역동성과 권력

종교학의 성스러운 공간에 대한 논의는 고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인 공간에 대해 다룬다. 성과 속의 대립, 그리고 힘의 중심성은 공간이 전이적이며 비균질적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스미스는 성스러움을 만드는 인간의 능동적인 역할에 주목함으로써 공간의 개별성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정치, 경제, 사회를 포함하는 세속적인 힘이 공간을 성지화한다는 논의의 확장으로 이끈다. 이를 통해 공간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투사에 의해

38) Chidester and Linenthal, "Introduction", in *American Sacred Space*, ed. David Chidester, Edward T. Linenthal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5), 14.
39) Knott, *The Location of Religion*, 2.

창조된 것이자 수동적인 용기(container)가 아닌 인식의 능동적인 산물"[40] 로 다룰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간의 역동성, 특히 세속적인 권력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적인 공간학[41]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는 공간학의 전개가 시간과 공간의 경쟁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공간이 역동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공간 연구와 권력 투쟁의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간에 대한 주목이 물리학과 철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인문학, 사회학 등으로 확장되었던 계기는 20세기에 발생한 '공간적 전회'이다. 공간적 전회라는 개념은 1989년 미국 인문지리학자 에드워드 소자(Edward Soja)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42] 이것은 근대화와 계몽주의가 만든 시간과 공간의 폐쇄적인 이분법을 극복하려는 시도였다. 산업화와 의식철학은 시간과 공간을 대조하여 시간에 우월한 지위를 부여했다. 경제적 발전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근대적 입장은 상대적으로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다. 또한 의식이 몸을 지배해야 한다는 계몽주의적인 의식철학은 공간에 대한 시간의 통제력을 부각했다.

> 대략 1850년 이전까지-이는 헤겔이 설정한 경계이다(저자의 주)-서구의 사유는 역사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 시간과 공간, 역사와 지리 사이에서 상대적인 균형감각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역사적인 것에 명백한 특권을 가져온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이 시점에 사람들은 역사와 시간을 과정, 진보, 발전, 변화, 역동성, 변증법, 문제성, 균형 혹은 이동 등의 개념과 연결하기 시작했다. 반대로 공간은 죽은 것, 환경, 외부에 있는 것, 사회 외적인 것, 구성적인 것으로 간주했다.[43]

---

40) 스미스, 『자리잡기』, 66.
41)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공간의 생산』, 양영란 옮김 (서울: 에코리브르, 2011), 549.
42) 외르크 되링(Jörg Döring), 트리스탄 틸만(Tristan Thielmann), 「서문: 우리는 공간에서 무엇을 읽는가?」, 『공간적 전회』, 이기숙 옮김 (서울: 심산, 2015), 7-8.
43) 에드워드 소자(Edward Soja), 「"시대정신"에서 "공간정신"으로」, 『공간적 전회』, 외크르 되링, 트리스탄 틸만 엮음, 이기숙 옮김 (서울: 심산, 2015), 282.

공간은 상대적으로 열등한 것들을 대표하는 언어로 사용되었고 시간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간과되었다. 공간은 학문적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서 '공간의 망각'이라고 불리는 상황이 고착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포착하고 근대에 대한 반성을 시도한 것이 공간적 전회이다. 그러므로 공간 연구는 시간과 공간 사이의 긴장과 경쟁을 배경으로 전개되었다. 이 작업은 공간의 승리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잃어버린 시간과 이론적 균형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공간의 복권을 시도한 것이다.[44] 시간의 속성이라고 규정되었던 것들을 공간에도 똑같이 부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중 가장 중요한 논의는 바로 공간의 정치적인 역동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도린 매시(Doreen Massey)는 공간 연구의 수많은 논쟁들 중에서 공간에서 정치의 가능성을 사상한 개념, 즉 공간을 탈정치화시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45] 에르네스토 라클라우(Ernesto Laclau) 등이 여전히 근대적인 이분법을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클라우는 "정치와 공간은 이율배반적인 용어들"[46]이라고 명시하면서 시간성에 대한 연구 가능성만을 채택했다. 이러한 견해는 공간에서 역동적인 '탈구'(dislocation)의 가능성을 박탈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운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진정한 변화를 의미한다.[47] 탈구의 결여는 곧 정치적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공간은 실제로 아무 일도 벌어질 수 없는 정체 상태에 머물게 된다.[48] 그 안에서 어떤 의미 있는 것도 읽을 수 없는 공허한 배경으로 남는다. 이때의 공간은 "추상적 경기장(arena) 혹은 수동적인 용기(container)"에 불과하다.[49] 그러므로 공간적 전회의 가장 시급하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공간도 역동적이라는 것을 정치적 가능성을 통해

---

44) 소자, 「"시대정신"에서 "공간정신"으로」, 285.
45) 도린 매시(Doreen Massey), 『공간, 장소, 젠더』, 정현주 옮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 448.
46) Ernesto Laclau, *New Reflection on the Revolution of our Time* (London: Verso, 1990), 68.
47) 매시, 『공간, 장소, 젠더』, 451-452.
48) 매시, 『공간, 장소, 젠더』, 454.
49) Knott, *The Location of Religion*, 14-15.

확인하는 것이었다. 급진지리학이라고도 불리는 공간적 전회는 사회적 관계에 주목하여 체제를 변혁하는 권력 투쟁의 공간을 제시한다.

공간적 전회를 이끌었던 급진지리학 진영은 마르크스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실증주의 지리학을 비판했다. 이것은 프랑스 68 혁명으로 촉발된 1960년대 도시 위기 사건과 맞물렸다.[50] 68 혁명은 미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에 항의하고자 8명의 청년들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파리 지사를 습격한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전역의 대학생 시위와 대규모 노동자 파업이 촉발된 일이다. 동시에 미국과 독일 등에서도 반체제 운동이 확산되었다. 이들의 기조는 전쟁을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이었다. 마르크스주의 기반의 급진적인 공간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하고자 했다. 이들은 공간을 구성하는 사회적 관계에 주목했다. 도시를 구성하는 생활, 노동, 자본에 주목하면서 계급, 차별, 불평등의 문제를 공간적 차원에서 다루려고 한 것이다. 권력, 지배와 종속 등으로 가득한 공간을 일종의 '권력 기하학'(power-geometry)이라고 보았다.[51]

이러한 시도의 선구자로 여겨지는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는 사회적 요소들의 변증법적인 관계가 공간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공간은 (사회적) 생산물[52]"이라는 것이다. 르페브르는 공간이 지배 관계의 재생산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간은 권력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보였다. 공간은 노동계급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도구로서 활용된다는 것이다. 공간이 사회적인 생산물이라면 공간은 정체의 영역이 아니라 역사의 생산, 그리고 잠재적으로 정치에도 크게 개입한다.[53]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공간을 분석하면서 공간의 탈구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었다. 권력을 두고 사회적 관계들 사이의 투쟁이 발생하는 것을 보임으로써 역동적이고 정치적인 공간 개념이 정립된 것이다. 다음 르페브르의 저술은 공간이 변화가능하며 사회

---

50) 소자, 「"시대정신"에서 "공간정신"으로」, 289.
51) Doreen Massey, "Power-geometry and a Progressive Sense of Place", in *Mapping the Futures: Local Cultures, Global Change*, ed. Jon Bird...[et Al.] (London: Routledge, 1993), 59-69.
52)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76.
53) 매시, 『공간, 장소, 젠더』, 456.

적 관계의 역동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그리하여 자본주의 축적의 공간은 점차 활기를 띠고 넘쳐 흐르게 된다. 놀랍게도 이 활성화 과정이 역사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 동력은 모든 요소들(왕조의 이해, 이데올로기, 권력자의 야심, 국민국가의 형성, 인구학적 압력 등등) 속에서 추구된다. 이 과정은 사건들의 시기와 연쇄를 끊임없이 분석하고 헤매는 여정이다. 공간이 그러한 모든 연대기들의 핵심이라면 적어도 다른 요인들만큼이나 적실한 설명원리가 되지 않을까?[54]

그러므로 공간을 분석하는 일은 그 안에 투영된 다양한 권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공간에서 권력을 읽는 작업은 학제 간 연구의 접점을 제공한다. 종교학과 공간학은 서로의 영역을 공간 분석의 중요한 요인으로 포괄할 수 있다. 종교학은 성스러운 공간에 투영된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55] 동시에 공간 연구도 젠더, 섹슈얼리티, 계급, 인종 등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권력 관계들에 대한 지식에 대한 탐구가 될 수 있다.[56]

2. 네 가지 유형으로 본 정감록의 공간론

이처럼 공간이 성스럽고 정치적인 권력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정감록에 나타난 공간도 다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유의미한 연구 대상으로 공간을 강조하기 위해, 예언이 언급하는 공간들을 유형화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공간을 구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감록의 전개에서 공간의 중요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현실적인 지명과 주소를 사용하는 정감록의 공간 서술은 『택리지(擇里志)』로 대표되는 조선시대 인문지리

54) Henri Lefebvre, *The Production of Space* (Oxford: Basil Blackwell, 1991), 275.
55) Knott, *The Location of Religion,* 122.
56) Knott, *The Location of Religion,* 6.

서와 차이를 보인다. 인문지리서는 지리적 위치, 지형, 기후, 자원 등 지리적인 요소들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다루고 있다. 반면, 정감록은 공간을 중심으로 국가와 민생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예언적 서술이 두드러진다. 여기에서 공간은 단순히 국토를 구성하는 지리적 요소에 그치지 않는다. 정감록이 언급하는 공간 목록은 특정 예언과 연계되어 상황별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한다. 그 내용은 왕조의 형성, 국말의 징조 등 왕조교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정감록의 역학적 서사가 공간에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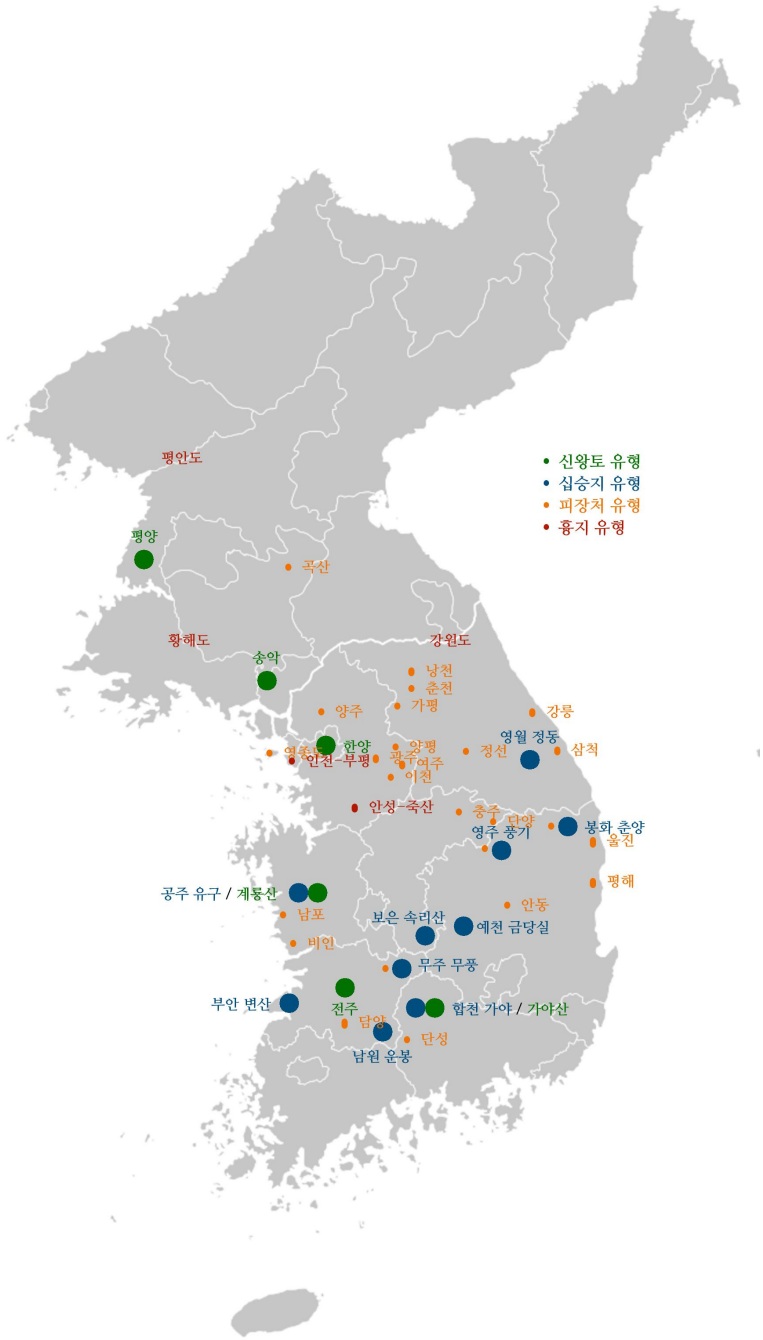
그러므로 「감결」을 비롯한 정감록 판본에 나타나는 공간들을 유형화하여 정감록의 공간론을 정립하는 작업은 공간과 권력의 관계를 이해하는 선행 작업으로 의미가 있다. 각 유형의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정감록의 서사와 공간의 기능을 정리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네 가지 유형으로 정감록의 공간을 분류하였다. 각 유형과 해당하는 지명의 목록은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남사고 계열의 목록을 반영하여 십승지의 위치를 지정하였다.

[표 1] 정감록 공간의 네 유형과 지명

유형	신왕토(新王土)	십승지(十勝地)[57]		피장처(避藏處)	흉지(兇地)
		이심 계열	남사고 계열		
지명	계룡산 (정씨) 가야산 (조씨) 전주 (범씨) 송악 (왕씨)	풍기 예천 안동 화곡 개령 용궁 가야 단양 영춘 공주 정산 삼마곡 진천 목천 봉화 운봉 두류산 태백	풍기 차암 금계촌 화산 소령 옛터 보은 속리산 운봉 행촌 예천 금당실 공주 계룡산 영월 무주 무봉산 부안 호암 합천 가야산	양주 양평 인천 영종도 춘천 기린곡 낭천 대미촌·소미촌 정선 가평 곡산 명미촌 충주 월악산 아래 경상도 내성 북면·춘양면 강원도 강릉·삼척·평해·울진 충청도 비인·남포·담양 전라도 무주 원학동 풍기 차령 금계촌 안동 북면 소라국 단양 가차촌 단성 북면·동양면 여주 사전촌 광주 율평 이천 광복동	안성과 죽산 사이 인천과 부평 사이 여주와 광주 사이 수성과 당성 사이 금강산 서쪽과 오대산 북쪽 황해도와 평안도(양서지방) 동쪽 산골(강원도) 전주와 호중의 진화 사이 용문산과 오대산 목멱산 (이하 생략)

57) 십승지 목록은 두 개의 버전, 즉 이심 계열과 남사고 계열이 전해진다. 대화체로 전개되는 이심 계열은 지명을 간략히 언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에 「남격암산수십승보길지지」를 따르는 남사고 계열은 십승지의 위치가 비교적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비결집록』처럼 대화체에서 이심 계열의 목록이 등장하더라도 뒷부분에 남사고 계열 목록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목록을 간단히 비교하면, 풍기, 안동, 운봉, 예천, 공주, 가야는 두 버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남격암 전승 목록에만 언급되는 곳은 보은, 영월, 무주, 부안 등이고 김천(개령용궁), 단춘(단양영춘), 진목(진천목천), 태백 등은 남격암 전승의 목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남격암 전승과 유사한 목록은 「징비보장」, 「운귀기책」 등에서 제시된다. (최종성, 「야나기타 분지로(柳田文治郎) 본 『진본 정감록(眞本鄭堪錄)』의 검토」, 『종교학연구』 40 (2022): 21.)

[그림 1] 정감록 공간의 분포



각 유형의 분포를 표시한 [그림 1]을 보면, 정감록이 다루는 공간의 대부분이 한강 이남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십승지는 한반도의 남쪽에 몰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앞서 최남선과 황선명 등이 강조했던 남조선신앙의 근거가 이러한 지역 분포에 있다. 반면, 평안도와 황해도는 도적떼와 오랑캐의 침입이 빈번한 흉지로 지정되어 있다. 이처럼 흉지는 넓은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강원도에도 일부 지역에서 십승지와 피장처를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정감록의 공간은 같은 지역에서도 다양한 유형이 공존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흉지 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은 긍정적인 공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며 위치상 근접성을 보이기도 한다. [그림 1]의 분포를 상기하며 각 유형의 특징과 성격을 자세히 분석하려 한다.

1) 신왕토(新王土) 유형

먼저, '신왕토 유형'은 조선 왕조의 도읍지인 한양을 대체할 새로운 왕조의 중심지로 거론되는 곳이다. 정감록은 왕씨의 계보와 함께 각 왕조가 도읍할 신왕토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왕토를 지배권을 가진 특정 성씨와 왕조의 존재를 전제하는 상징적인 공간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이 유형은 정감록의 왕조교체사상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현 권력을 부정하는 동시에 혁명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예언에서 신왕토는 지맥(地脈)의 흐름에 따라 지정되고 있다. 여기에는 왕조의 생명력이 땅에서 비롯된다는 전통적인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신왕토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새로운 왕조의 등장에 필연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 곤륜산으로 온 맥이 백두산에 이르렀고, 원기(元氣)가 평양에 이르렀으나 평양은 이미 천년의 운이 지났기 때문에 송악 오백년의 땅으로 옮겨갔다. 요승(妖僧)과 궁녀가 난을 일으켜 땅의 기운이 쇠하고 하늘의 운이 막혀서 운이 한양으로 옮겨갔다.[58]

내려온 맥의 운이 금강산으로 이동하여 태백산과 소백산에 이르게 되고, 산천의 모인 기(山川鍾氣)가 계룡산으로 들어가니 정씨 팔백년의 땅이다. 원맥(元脈)인 가야산은 조씨 천년의 땅이다. 전주는 범씨 육백년의 땅이다. 송악에 이르니 왕씨가 복흥(復興)할 땅이다. 나머지는 상세하지 않아서 살필 수 없다.[59]

이처럼 정감록은 태백산에서 발원한 땅의 기운으로 왕조의 변천사를 설명하고 있다.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을 예언의 연대기에 포함함으로써 그 근거가 되는 지맥의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험적인 과거의 역사가 정감록의 신빙성을 고조시키는 증거로 활용되면서, 운명적인 정씨 왕조의 도래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권력을 공간에 귀속시켜 이해해 온 '지기쇠왕설'(地氣衰旺說)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즉, 도읍지에 서린 왕기(王氣)는 시간이 지나면 소진된다는 사상으로, 예부터 왕권의 성쇠를 점치는 논리로 사용되었다. 왕기가 충만한 땅을 찾아 천도를 하거나 반란 세력이 결집했던 역사의 저변에는 권력과 공간에 대한 독특한 인식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표 2] 지맥의 흐름과 왕조교체

송악 (왕씨)	한양 (이씨)	계룡 (정씨)	가야 (조씨)	전주 (범씨)
500년	-	800년	1000년	600년

왕조의 운명이 도읍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영향을 받는다는 원리는 정감록에서 시간보다 공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표 2]는 지맥의 흐름에 따른 각 왕조의 도읍, 왕씨, 유지 기간을 정리한 것이다. 조

58) "自崑崙來脈, 至白頭山, 元氣至于平壤, 平壤已過千年之運. 移于松岳, 五百年之地. 妖僧宮姬作亂, 地氣衰敗, 天運否塞, 運移于漢陽 (중략)."

59) "來脈運移金剛, 至于太白【在安東】·小白【在 】, 山川鍾氣, 入於鷄龍山, 鄭氏八百年之地. 元脈伽倻山, 趙氏千年之地. 全州范氏六百年之地. 至於松岳, 王氏復興之地. 餘未詳, 不可攷也."

선 400+α년[60], 계룡 800년 등 시간의 문제는 결국 신왕토의 위치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신왕토 형은 권력의 공간화, 즉 물리적이고 상징적인 공간의 지배력과 동일하다는 본 논문의 관심사를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기쇠왕설을 바탕으로 한 지맥의 원리와 함께, 신왕토 유형이 정감록의 왕조교체사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진인출현설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다. [표 2]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각 신왕토에는 특정 왕씨가 배정되어 있다. 왕기가 가득한 땅을 점유하는 것이 특정 성씨를 가진 진인의 등장을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계룡이 한양을 부정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다면, 공간의 주인인 정씨의 존재는 이씨의 대항마로 여겨졌다. 그래서 역모 세력에게 신왕토를 차지하는 것만큼 중요했던 것이 정씨 진인을 찾는 일이었다. 조선시대 역성혁명의 전형으로 살펴볼 정여립 모반 사건 역시 계룡산에 합당한 왕씨로서 정씨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후술할 것이다. 공간과 왕씨를 강조한 혁명 전략이 반복되면서 왕조교체의 전략으로 계룡산이 부각되어 갔다는 점을 유추해 볼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상상력이 도읍지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감록 서사에서 공간이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언된 땅을 차지하려는 반복적인 실천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공간 인식이 계룡산의 의미를 중층적으로 생산했을 것이다. 반란의 주모자들은 정감록을 비롯한 여타 예언서들이 언급하는 망국의 시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신왕토라는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조선의 쇠락과 정씨 왕조의 발흥이 도래한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왕토에 대한 기대는 지기쇠왕설을 넘어, "한양의 왕기가 아직 소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압도하는 새로운 도읍만 획득한다면 반란이 성공할 수 있다는 관념"[61]으로 발전했다.

---

60) 『비결집록』은 조선 왕조의 유지 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정감록 이본들은 백년 단위로 조선의 위기설을 언급하고 있다. 3백년설(+α), 4백년설(+α) 등으로 나타나며, 사후확증적인 차원에서 5백년설에 대한 논의가 단편적인 비결류 문헌과 20세기의 기록에서 발견된다. (최종성, 「정감록 백년왕국론과 조선 후기 위기설」, 12-31.)

61) 한승훈, 「전근대 한국의 메시아니즘」, 34.

정리하자면, 신왕토 유형은 차기 권력의 잠재적 중심지라고 볼 수 있다. 왕조교체의 필연성을 증명하는 왕기의 존재와 왕씨의 등장을 포함하는 공간화된 힘을 보여주는 유형이다. 개인과 왕조의 운명이 물리적 공간에 귀속된다고 여기는 당대인의 공간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정감록의 핵심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신왕토는 예언의 유지와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신왕토의 현실성은 정감록의 신빙성을 높이는 근거이자, 언제든 도래할 새로운 세상에 대한 들끓는 소망의 근원이기도 했다.

2) 십승지(十勝地) 유형

다음으로 '십승지 유형'은 조선의 국운이 다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변란으로부터 생을 유지할 수 있는 열 개의 승지이다. 십승지 목록은 풍수법에 따라 채택되었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심 계열과 남사고 계열의 두 버전이 전해진다. 십승지 목록에는 "곡식 종자는 삼풍(혹은 양백)에서 구하고 사람의 종자는 양백에서 구할 것이니, 이 열 곳은 병화가 들어오지 못하고 흉년이 들지 않는다"[62]라고 덧붙이고 있다. 또한 운봉 두류산에 대해 "영원히 살 만한 땅이며, 어진 재상과 훌륭한 장수가 잇달아 난다"[63]라고 하여 십승지 선별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십승지는 단순히 몸을 피하는 임시방편이라기보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물적 자원이 풍부하며 새로운 세상의 주역이 될 인재가 날 곳으로 설정되어 있다.

십승지 형은 신왕토 형과 마찬가지로 조선 이후를 염두에 둔 공간이지만, 이용 계층과 기능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계룡산과 같은 곳은 미래의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라면, 십승지는 미래의 삶을 보장하는 공간에 가깝다. 즉, 이 유형은 정치적 권력과는 일정한 거리를 둔 민중들의 생애지향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십승지는 신왕토에 대한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작용하는 곳에 배치되어 있다.

---

62) "求穀種於三風【或豊】, 求人種於兩白, 此十處, 兵火不入, 凶年不入 (중략)."
63) "乃永居之地, 賢相良将. 繼繼而出."

이때 정감록에서 십승지 목록 전후의 맥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정 왕씨에게 허용되는 신왕토처럼, 십승지 역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첫 번째 조건은 '지각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두 번째 조건은 '가난한 사람'이어야 한다.

> 어느 세월이 흘러, 어느 해를 맞이하면, 지각이 있는 사람은 살고, 지각이 없는 사람은 죽고 말 것이다.64)

> 후세 사람이 지각이 있어 먼저 십승지에 들어가면 가난한 자는 살고 부자는 죽으리라.65)

> 부자는 돈과 재물이 많은 연고로 섶을 지고 불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가난한 자는 일정한 수확이 없으니 어딜 가든 빈천하게 살지 못하겠는가, 그러므로 조금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때를 살펴 행동해야 할 것이다.66)

여기에서 지각의 유무는 정감록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맥의 이동이나 망국의 징조들을 포착하여 적절한 때를 인지하고, 예언의 지침에 따라 십승지로 들어가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감록을 공유했던 주체들이 가진 일종의 연대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다. 왕조교체에 대한 열망과 예언에 대한 믿음이라는 공감대가 요구되고 있다. 십승지에 내재된 배타성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 즉 조선 왕실의 기득권 세력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당시 혼란스러운 조선 사회를 만든 귀족에 대한 반감이 반영된 동시에, 이들을 배제함으로써 유토피아적인 미래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민중의 염원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십승지는 당시 민중이 가진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의 공상적인 '이상사회'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다.67)

---

64) "經某歲, 當某年, 有知覺者生, 無知覺者死."
65) "後人若知覺, 則先入十勝, 而貧者生富者死."
66) "富者多錢財, 故負薪入火也, 貧者無恒產之致, 安往而不得貧賤哉. 然而稍有知覺者, 觀其時而行."

3) 피장처(避藏處) 유형

그 다음 목록인 '피장처 유형'은 혼란을 피하여 은거하기 좋은 공간이라는 점에서 십승지 유형과 유사하다. 『정감록』 이본인 「피장처」의 제목과 목록이 여기에 해당한다. 피장처로 제안된 곳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접근이 어렵도록 깊고 험준하다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병화가 미치지 않고 은거하기 좋은 곳으로, 「피장처」의 화자는 해당 공간들을 복거지지(卜居之地) 또는 보길지지(保吉之地)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림 1]에서 피장처는 한양 근처와 강원도 주변에 밀집되어 있으나, 남부 지방에도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때로는 십승지 목록과 겹치거나 근접한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공간의 역할과 위치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이유는 비교적 명확하다.

우선, 「피장처」가 「감결」보다 후대에 작성된 이본이기 때문이다. 피장처에는 정감록의 배경이 되는 왕조교체기의 혼란이라는 전후 맥락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망국의 때와 별개로 은거지라는 특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장처는 살기 좋은 곳이라는 주제를 공유하는 십승지 목록이 확장되고 구체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68] 열 개에 국한된 목록에 비해 피장처에 열거된 지명은 그 수가 더 많다는 특징이 있다. 심지어 흉지로 지정된 곳에서도 피장처를 찾고 있다. 모호하고 포괄적인 지명을 사용한 이심 계열의 십승지와 달리, 피장처는 해당 목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이심 계열 버전의 단순함에 불만을 가진 민중의 갈증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오히려 남사고 계열의 부연성을 가진 피장처는, '살만한 곳'에 대한 논의가 이심 계열-남사고 계열-피장처 순서로 발전해 왔다고 유추할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69]

---

67) 우윤, 「19세기 민중운동과 민중사상-후천개벽, 정감록,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2 (1998): 228.

68) 양승목, 「조선 후기 십승지론의 전개와 '살 곳 찾기'의 향방」, 『한국한문학연구』 63 (2016): 111-113.

69) 양승목, 「조선 후기 십승지론의 전개와 '살 곳 찾기'의 향방」, 113-114.

은거지 목록에 있어서 십승지는 10개라는 정형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장처를 확장본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피장처는 더 넓은 지역을 포괄하면서 접근이 어려운 특징을 신비화하고 있다. 이것은 매뉴얼로서 정감록의 현실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역의 채택에 있어서 인재등용과 특산물을 근거로 제시한 것을 고려하면, 남사고 계열 십승지와 함께 『택리지』 중 「팔도총론(八道總論)」이나 「복거총론(卜居總論)」과의 유사성도 발견할 수 있다.

4) 흉지(兇地) 유형

마지막은 '흉지 유형'으로, 말년에 발생하는 전염병, 전쟁, 도적떼의 침입 같은 변란의 장소들이다. 정감록의 화자는 산수의 형상을 따져서 국말의 사건들을 예언했는데, 흉지 유형에 속하는 공간들은 풍수지리설에 근거하여 부정한 곳으로 평가되었다. 단일 지명보다는 지역 간에 걸쳐 있거나 산맥을 따라 분포하는 경우가 많다. 각처에서 일어날 흉흉한 사건의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신년(申年) 봄 3월, 성세(聖歲) 가을 8월에 인천과 부평 사이에서 밤중에 배 천척이 닿을 것이다. 안성(安城)과 죽산(竹山) 사이에 쌓인 시체가 산과 같을 것이며, 여주(驪州)와 광주(廣州) 사이에 사람의 그림자가 영영 끊어지고, 수성(隋城)과 당성(唐城) 사이에 흐르는 피가 내천을 이루고, 한강 남쪽 백리에 닭과 개의 우는 소리가 없어지고, 사람의 그림자도 끊어질 것이다.[70]

70) "三人相對, 何所不言. 申年春三月, 聖歲秋八月, 仁富之間, 夜泊 千艘. 安竹之間, 積尸如山, 驪廣之間, 人影永絕, 隋唐之間, 流血成川, 漢南百 里, 鷄犬無聲, 人影永絕."

> 금강산 서쪽과 오대산 북쪽은 12년간 도적의 소굴이 되고, 9년의 수해와 12년의 병화가 있을 것이니, 어떤 사람이 피할 수 있겠는가?[71]

> 후대의 어리석은 사람의 눈으로는 용문산을 은신의 방편으로 삼을 것이다, 산수법에 따라 보면 겉으로는 생기가 있다 할 수 있으나, 용문산은 한양(漢陽)에 기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 기세가 다 죽은 혈이다, 후세 사람이 이 산에 살면 오대산 북쪽의 도적들이 수색할 것이니, 일 년이 못되어 만 명의 목숨이 재가 될 것이다,[72]

흉지에서 예견된 징조를 실제 조선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과 대응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안산과 죽산 사이에” 시체가 쌓인다는 예언은 무신란으로 불리는 1728년(영조 4)에 발생한 ‘이인좌의 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곳에서 관군과 반군이 격돌하여 반란군 대부분이 궤멸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의 일치는 정감록의 적중성에 대한 경험적 근거가 되어 여타 징조의 실현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동시에 왕조교체의 임박함을 판단하는 근거로서 예언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결과를 낳았다. 자연스럽게 십승지로의 이주, 계룡산에서의 정씨 등장에 대한 기대감도 촉발하게 되었다.

5) 공간 유형 비교

이상으로 정감록의 공간을 정리하면, 네 가지 유형이 독립적으로 기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서로 유사하거나 대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정감록 예언 안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공간론을 바탕으로 유형 간의 성격을 비교하여 그들이 어떤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석할 것

71) “金剛之西, 五臺之北, 十二年賊穴, 九年之水, 十二年兵火, 何人避之乎?”
72) “後世之愚眼, 以龍門為隱身之方. 盖山水之法, 以外言之有生氣, 然而 已奪氣於漢陽, 故中氣勢, 皆死穴也. 後人若處此山, 則五臺之北, 賊民搜 探, 不一年之內, 萬命灰死.”

이다.

우선, 네 가지 유형의 공간에 대한 정감록 화자의 평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정감록 화자는 산수법에 따라 공간을 소개하고 있는데, 공간이 기능하는 특정 예언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생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과 죽음이 예견된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정감록 화자는 전자는 길지로 방문, 이주, 점유를 장려하고 있다. 후자는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기피하여 목숨을 부지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근거로 각 유형을 길함(+)과 부정함(-)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의 공간은 생명, 장려, 이상세계의 특징을 갖고 음의 공간은 죽음, 기피, 디스토피아의 특징을 갖고 있다.

[표 3] 공간 유형 비교 1 - 길함/부정함

유형	신왕토	십승지	피장처	흉지
길함/부정함	+	+	+	-

[표 3]과 같이 양의 공간에는 유형 1, 2, 3이 속하고 음의 공간에는 유형 4가 해당한다. 신왕토는 혼란스러운 현 체제에 대한 전복적인 염원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길한 공간으로 평가된다. 왕기가 쇠한 한양과 대조적으로 민중의 유토피아로 기대되는 긍정성을 보인다. 십승지와 피장처 역시 환난을 피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유형이라는 점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곳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흉지 형은 삶을 위협하는 변란의 장소이기 때문에 기피해야 하는 부정한 공간이다.

그러나 [표 3]에서 양의 공간에 해당되는 유형 1, 2, 3 역시 동질적이지 않다. 긍정하는 삶의 형태와 주체가 다르고, 그에 따른 예언의 내용 역시 차이가 있다. 공간이 결정하는 운명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공간이 있는 반면, 민생과 직결된 공간이 있다. 여기에서 다시 국운과 연계된 공간에 양의 값을 부여하고, 국운보다는 민생을 책임지는 공간에 음의 값을 부여하여 [표 4]처럼 정리하였다.

[표 4] 공간 유형 비교 2 - 국운/민생

유형	신왕토	십승지	피장처
국운/민생	+	−	−

조선을 계승하는 새로운 왕조의 터로 점지된 신왕토 형은 민초들의 공간이라기보다 왕권을 열망하는 주체들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은 권력과 직결되며 차기 왕권의 향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반란의 정당성이 세워지는 공간이다. 반면에 십승지와 피장처는 피권력자인 민중들의 생활 터전에 가깝다. 그러므로 국운과 민생으로 구분되는 이들 유형은 정감록을 수용하여 실천했던 주체 사이의 대조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황선명에 따르면 십승지는 일종의 도피라는 소극적 실천이 이루어진 곳이고, 계룡산으로 대표되는 신왕토는 적극적인 저항사상의 실천이 이루어진 곳이다.[73] 유형 1은 새로운 권력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지배 계층이 지향하는 공간이라면, 유형 2와 유형 3은 왕조교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반인들의 공간이다. 신왕토에 비해서 십승지와 피장처는 "현실적인 평화와 안락을 보장받는 소박한 세계"[74]를 상징한다. 실제로 정감록을 위시한 역사적 실천의 사례를 보면, 왕조교체의 꿈을 가진 세력들은 정감록을 사상적 근거로 내세우면서도 십승지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았다.[75] 길하다고 판단되는 공간들 역시 국가와 민초라는 서로 다른 주체에 따라 구분되고, 이들이 대망하는 서로 다른 공간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각 유형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동질적이다가도 대조적인 관계로 변화하면서 정감록 공간이 가진 비균질성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공간 유형 사이의 관계들은 결국 정감록의 핵심 주제로 수렴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왕조교체라는 권력지향적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사하고 대조적인 공간 유형이 복잡하게 얽혀 있

73) 황선명, 『조선조종교사회사연구』, 275-276.
74) 양은용, 「풍수지리설과 정감록」, 『종교문화연구』 19 (2012): 322.
75) 한승훈, 「전근대 한국의 메시아니즘」, 37-38.

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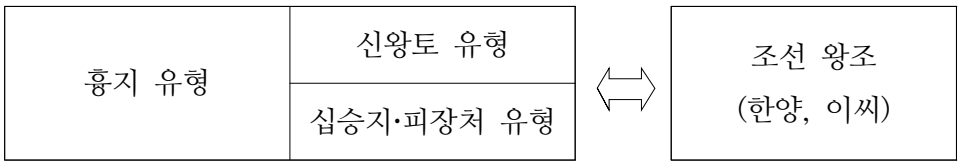
우선, [표 3]에서 부정한 공간으로 분류된 흉지는 예언의 전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다. 흉지에서의 사건들은 왕조교체의 정당성이 되는 징조, 즉 지맥이 이동할 때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표 4]에서 살펴본 두 주체의 서로 다른 공간 실천이 발생하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정씨 진인과 추종자들은 계룡산에서 왕조를 건립하고, 민생은 십승지 등으로 피난하여 화를 면하는 일이다. 실제로 정감록은 공간 유형을 독립적으로 소개하지 않고 연쇄적인 사건 속에서 복합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비로소 진인이 출현하여 인천과 부평 사이에 밤중에 배 천 척이 올 것이다”[76]라는 「감결」의 구절은 유형 1과 유형 4가 긴밀히 연결된 채 예언을 완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조선말의 변란에 대해 “장차 어떻게 해야 하는가?”하는 질문에 십승지 목록을 소개하고 피난을 장려하고 있다. 이처럼 각 공간은 예언의 각 단계에서 기능하며 하나의 서사를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부정한 흉지 유형 역시 길한 공간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각 유형은 이씨 한양에서 정씨 계룡이라는 변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운명적으로 설득하는 요소라는 것이다. 앞서 신왕토는 조선의 중심지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모든 공간 유형은 왕조교체의 희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체제와의 투쟁 공간이 된다. 길함과 부정함, 국운과 민생을 기준으로 구분되었던 각 유형은 조선과의 다툼에 있어서는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지배력을 발휘하는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새로운 권력을 상징한다. 정감록이 말하는 왕조교체의 서사를 공간 중심으로 재편하면 [표 5]와 같은 대립 구도를 확인할 수 있다.

---

76) “真人乃出仁富之間, 夜泊千艘云."

[표 5] 정감록에 나타난 공간의 대립 구도



정감록의 공간론을 정리함으로써 조선에 대항하는 권력의 존재가 공간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힘의 대립이 공간의 대립으로 치환된다는 것은 역동적인 공간과, 투쟁의 결과로서 성지화에 대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공간론을 바탕으로 연구사에서 주목한 비균질적인 공간과 성별에 작용하는 힘을 다루고자 한다. 특히 한양, 이씨, 조선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신왕토 형인 계룡산을 둘러싼 유무형의 격돌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Ⅲ. 계룡산에 투영된 권력 투쟁과 그 역사

1. 반(反)왕조 사건으로 본 물리적 투쟁

계룡산이 잠재적인 권력의 공간으로 특정화되는 과정은 왕조교체의 예언을 몸소 실천하려 했던 반란 사건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왕조교체를 구호로 하는 반란의 모의와 실행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여기에는 당시 항간에 떠돌던 풍문이나 참서(讖書)에 깃들어 있는 계룡산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도출해서 현실 세계의 신왕토로 역사화하려고 했던 주도자들이 있었다. 반(反) 왕조 세력은 미래의 도읍지를 물리적으로 점거함으로써 왕권을 찬탈할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그들이 주도한 역모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조선 왕실과의 권력 투쟁이었지만, 근원적으로는 한양과 계룡산의 공간적 대립이기도 했다. 그만큼 반왕조 세력에게 있어 공간의 상징성은 물리적인 폭력을 갖추는 것 못지않게 이데올로기적인 설득력을 제공하는 지배적인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공간에 대한 지향성, 특히 계룡산이 지닌 정치적 힘의 원천과 발산에 대한 지표를 간과할 수 없는 것도 이에 연유한다.

여기에서는 조선 왕실과 대립했던 반란 사건들이 신왕토로서 계룡산이라는 모티프를 복제하면서 공간이 반왕조적인 권력의 상징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조선상식문답』에서 최남선은 조선 후기 변란 사건들이 공유하는 전형적인 특징을 지적한 바 있다.[77] 이씨 왕조를 대체할 정씨라는 '왕씨', 한양을 대신할 계룡산이라는 '왕도'가 반왕조 세력에게 고정된 기호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기호의 생성과 반복의 연대기를 통해 계룡산에 의거하려 했던 정치적 권력의 존재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77) 최남선, 『朝鮮常識問答』(서울: 동명사, 1946), 112.

1) 정감록 사건의 전형, 정여립 모반 사건(1589)

1589년(선조 22)에 발생한 정여립 모반 사건, 즉 기축옥사(己丑獄事)는 정감록을 기반으로 하는 혁명운동, 민중운동, 종교운동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다.[78] 신왕토인 계룡산과 그 주인인 정씨를 강조한 역성혁명의 전형이 만들어진 사건이기도 하다. 기축옥사는 문헌 형태의 『정감록』이 관찬사료에 처음 등장한 1739년(영조 15) 보다 140년 앞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미 정감록이라고 특징할 만한 예언이 구전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축옥사가 특정 예언의 힘을 발휘하고자 했다는 단서는 『선조수정실록』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후대의 정치적 의도와 상상력이 가미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선조수정실록』은 1623년 인조반정을 주도한 서인의 관점에서 개조되었다. 『선조실록』에 비해 기축옥사에 대한 내용이 방대해졌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사건 당시와의 시간적 괴리를 고려하면, 『선조수정실록』의 기록은 비교적 예언이나 도참에 근거한 반란 사건이 증가하고 술수에 능한 승려나 술사들이 동원되었던 17세기의 분위기가 가미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수정실록』이 반란 사건의 배후를 재구성하기 위해 동원한 모티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왕토로서 계룡산의 입지를 강조하며 공간에 합당한 왕씨로 정씨를 주도자로 내세웠다는 설명은, 『선조수정실록』을 작성할 당시에 이미 특정 공간에 대한 예언이 일반적으로 퍼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 왕실의 인식 속에서 일부 요소를 갖춘 예언의 구절은 중앙에 대항하는 불온한 사상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것이다. 계룡산과 정씨가 주요 모티프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공간이 정치적 변혁의 힘을 대변하는 기호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선조수정실록』은 정여립이 예언을 퍼뜨려 민심을 선동하려 했다고 기록한다. 의연을 비롯한 승려 무리가 정여립과 공모하였는데, 이들은 두루 산

78) 이능화, 『朝鮮基督敎及外交史』 下編 (京城: 朝鮮基督敎彰文社, 1928), 19.

천을 떠돌다 폐사지 벽에다가 아래와 같은 시를 썼다.

> 객(客)이 되어 남쪽 지방을 유람한 지가 오래인데
> 계룡산이 불쑥 환하게 눈에 비쳐오네
> 무자년과 기축년에 순조로운 운수가 열리리니
> 태평을 이루는 게 뭐 그리 어려우랴[79]

여기에서 '객(客)'은 곧 정여립을 의미하는데, 신왕토인 계룡산과의 관련성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다. 공간과 특정 성씨를 연계하여 반란의 정당성을 높이려는 전략이 기축옥사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다. 또한 정여립은 '팔룡(八龍)'을 자신의 환호(幻號)로 삼아 정팔룡이 계룡산에서 새로운 왕조를 세울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 이보다 앞서 1백여 년 전에, 민간에 '목자(木子)가 망하고 전읍(奠邑)이 일어난다.'는 참언(讖言)이 있었다. 여립이 요승(妖僧) 의연(義衍)과 모의하여 이를 옥판(玉版)에 새긴 다음, 지리산 석굴 안에 간직하였다. (중략) 국초 이래로 참설(讖說)이 있었는데, "연산현(連山縣) 계룡산(鷄龍山) 개태사(開泰寺) 터는 곧 후대에 정씨(鄭氏)가 도읍할 곳이다." 하였다. (중략) 또 말하기를, "정팔룡(鄭八龍)은 신용(神勇)한 사람으로 마땅히 왕이 되어 계룡산에 도읍을 정할 터인데 머지않아 군사를 일으킬 것이다." 하였다.[80]

『선조수정실록』은 기축옥사 이전에 이미 "목자가 망하고 전읍이 일어난다"라는 예언과 "연산현 계룡산 개태사 터는 후대에 정씨가 도읍할 곳이다"라는 예언이 존재했다고 보고 있으나, 조선왕조실록의 어떤 기사에서도 위와 같은 구절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만, 세조 대에 반란을 종용하던 무리가 "개태사에 중을 하나나 둘을 둔다면 수고롭지 않고도 대업을 이룰 수 있

79) 『선조수정실록』권23, 선조 22년 10월 1일 을해.
80) 『선조수정실록』권23, 선조 22년 10월 1일 을해.

을 것이다"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있다.[81] 계룡산 개태사가 혁명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나 공간의 주인이 정씨로 고정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기축옥사를 계룡산과 정씨의 관계를 정립한 최초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목자망전읍흥"이라는 구절 역시 정여립이 자신의 성씨를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된 측면이 크다. 정씨의 대두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은 조선 건국과 관련된 고려 말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이성계를 목자로 지목하여 삼한의 경계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태조를 돕는 '삼전삼읍'(三奠三邑)'이 등장한다. 삼전삼읍은 배씨, 조씨, 정씨를 가리키는 것으로 실제 개국공신이었던 배극렴, 조준, 정도전, 정총, 정희계를 염두에 둔 예언으로 여겨졌다. 정도전이 궁중 의식 악장인 수보록에 이 내용을 포함하면서 조선 왕실에 전승되었다. 이것이 기축옥사와 같은 반란 사건에 인용되면서 조선 건국의 예언이 조선 멸망의 예언으로 변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선조수정실록』이 정여립 일당의 예언이 국초 이래에 존재했다고 기술한 것은 이러한 배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예언의 일부를 활용하여 자신의 성씨를 계룡산의 주인으로 부각하려 했던 정여립의 노력으로 계룡산과 정씨라는 반란 사건의 모델이 만들어졌다. 특히 정여립이 환호로 사용했던 '정팔룡'이라는 이름은 정씨 진인의 별칭으로 각인되었다. 1739년(영조 15) 반란 모의 사건에서도 스스로를 정팔룡 혹은 정도령[82]이라고 일컫는 무리가 등장했다는 것은 정여립 사건이 왕조교체시도의 원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축옥사의 두 모티프인 계룡산과 정씨는 조선시대를 거쳐 근현대의 각종 민족운동, 독립운동, 신흥종교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전형의 반복 속에서 계룡산은 중앙의 통치력과 대립하는 힘의 발원지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

81) 『선조실록』 권23, 선조 22년 10월 1일 을해.

82) 정씨 진인의 유사 형태로 조선 후기에 등장한 명칭이다. 실제로 『정감록』 정본화 과정에서 정도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신회의 주장에 따르면, 1728년(영조 4) 무신란 주동자들이 정씨 진인을 정도령으로 변형하여 사용한 것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김신회, 「'정감록' 기억의 형성과 예언서 출현」, 『한국문화』 84 (2018): 229-230.)

2) 모티프의 모방과 변용

기축옥사 이후의 정감록 사건은 계룡산과 그에 합당한 왕씨라는 모티프를 활용하는 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계룡산이라는 조건이 조선 왕실과의 경쟁에서 유용한 전략으로 활용된 일은 1628년(인조 6) '유효립의 난'에서도 드러난다. 유효립은 인조반정으로 북인이 몰락하면서 연좌되어 제천으로 유배되었다. 귀양살이 중 대북파의 복권을 목적으로 반란을 모의하였다. 이들 무리는 광해군을 상왕으로 삼고 인성군을 추대하고자 했으나, 허유 등을 앞세워 거사를 일으키기 하루 전날 고변으로 인해 발각되었다.

> 죽산(竹山)에 사는 김진성(金振聲)·김득성(金得聲)·신서회(申瑞檜)·이두견(李斗堅) 등이 정원에 나아와 상변(上變)하기를, "본 고을에 사는 전 세마(洗馬) 허유(許逌), 유학(幼學) 허정(許珽)·이우명(李友明), 상놈 허사룡(許士龍)·강무생(姜戊生)·정진(鄭進)·이양(李暘), 진사 안집중(安執中) 등이 군사를 모아 모반하여 이미 한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내응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도감의 중군(中軍)·천총(千摠)·파총(把摠)과 내관(內官) 배희도(裵希度) 등이고, 괴수는 폐조(廢朝) 때에 승지를 지낸 사람입니다. 4일 대궐을 범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합니다." 하고, 유학 최산휘(崔山輝)는 상변하기를, "의금부의 서리인 이수향(李秀香)이 은밀히 신에게 말하기를 '나라에 큰 변이 발생했다. 제천(堤川)으로 귀양가 있는 유효립(柳孝立)과 원주(原州)에 사는 정심(鄭沁)·정자(鄭洎)·정린(鄭遴) 등이 함께 모의하여 거사하기로 했는데 인성군(仁城君)도 참여하여 알고 있다'고 하기에[83]

유효립 역시 역모를 모의하면서 승려 담화를 동원하여 왕조교체의 예언을 유포함으로써 민심을 선동하려 했다. 또한 역모 가담자들과 참서를 공유하였는데, 그 내용이 "초계(草溪)에 조수(潮水)가 들어오고 계룡(鷄龍)에 서울을 건립하는데 조선 사람들이 모두 벙거지를 쓰고 털옷을 입는다"[84]는 것이었다. 왕조교체의 시기와 관련해서 신왕토의 모티프를 사용하여 설득력

83) 『인조실록』 권18, 인조 6년 1월 3일 을축.
84) 『인조실록』 권18, 인조 6년 1월 3일 을축.

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초계조입 계룡건도”(草溪潮入 鷄龍建都)라는 구절은 정감록 중 「감결」의 구절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 계룡산의 돌들이 흰 색으로 변하고, 초포 죽이 흰색으로 변한다. 거친 갯벌에 조수가 일어 배가 다니며, 누런 안개와 검은 구름이 일어나고, 붉은 기운이 삼일 동안 감싼다.[85]

“초포”와 “초계”라는 지명의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형태와 주제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계룡산을 도읍으로 삼아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구절은 조선시대 예언문헌을 기반으로 한 변란에서 자주 등장하게 된다. 이후 ‘문인방 사건(1782)’, ‘이진채 사건(1812)’ 등에서 이들을 추동했던 예언에서 유사한 도입부를 발견할 수 있다.[86] 모두 명시적으로『정감록』이 언급된 변란들로, 계룡산을 왕조교체의 공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계룡산을 반란의 중심지로 삼는 전략은 예언의 권위에 기대어 반란의 정당성을 확보해 줄 뿐 아니라, 운명적인 실현가능성을 보장해 주기도 했다.

위의 사건이 계룡산 예언을 활용하는 정도였다면, 적극적으로 공간을 점유하려던 시도도 있었다. 1631년(인조 9)에 발생한 ‘정한 사건’에서는 노골적으로 계룡건도를 실천하려는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이 사건의 주모자인 권대진은 정한이라는 인물을 추대하여 계룡산에 도읍을 정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 하였다. 이들 무리는 도성의 왕기를 측정하는가 하면, 계룡산을 방문해 직접 풍수를 살펴보기도 했다.

> 그리하여 지난달 거사하려고 술사를 데리고 경성에 가 보았더니, 궁궐이 그야말로 길지(吉地)에 있고 왕기(王氣)가 아직 쇠하지 않아 경솔하게 움직이지 못하겠기에 그만두고 돌아왔는데, 그 길로 계룡산(鷄龍山)으로 내려가 지남철로 택지(擇地)한 뒤 도읍을 정할 계책을 세웠다 합니다.[87]

---

85) “鷄龍石白, 淸浦竹白, 草浦潮生行舟, 黃霧黑雲, 亦盪三日.”
86) 한승훈, 「조선 후기 변란의 종교사 연구」, 147.
87)『인조실록』권24, 인조 9년 2월 3일 정미.

정한 사건은 왕조의 운명이 도읍에 위치한 왕기의 유무로 결정된다고 믿는 지기쇠왕설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계룡을 응당 차기 도읍지로 여기고 있다. 이것은 정감록이 지맥의 흐름으로 왕조교체를 설명하는 원리가 실제 반란 모의에 그대로 적용된 사례이기도 하다. 공간에 대한 소유권을 통해 왕권을 쟁탈하려 했던 무리들은 예언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공간적 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언제든 예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변란에서는 공간을 직접 내세우지 않고 정씨 진인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을 공간 모티프가 중요성을 잃었다고 해석하기보다, 반란의 모의에 있어서 계룡산이라는 조건이 일반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정씨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왕토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정 왕씨를 모티프로 사용하는 전략은 계룡산의 상징성을 더욱 보편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씨의 대두는 곧 정씨의 땅에 대한 지향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1691년부터 1697년까지 3년의 시간차를 두고 벌어지는 세 건의 변란은 계룡산의 주인으로서 정씨 모티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숙종 17년 차충걸, 조이달, 조이달의 아내 애진은 '요사한 말'로 역모를 꾸민 죄로 참형에 처해졌다. 이들은 한양이 곧 망하고 전읍이 나타날 것이라고 창언(倡言)하며 생불 진인을 대망하였다. 수양산에 정필석이라는 생불이 있다고 믿으며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다니거나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88] 조정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무격을 업으로 삼으며 생불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축옥사 이후로 고정된 반란 사건의 정씨 모델을 복제하고 있다. 또한 1694년(숙종 20) '함이완 고변 사건'에서도 정씨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진인이 바다의 섬에서 육지로 도래할 것이라는 해도진인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바다 위에 머무는 정씨 진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금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어서 1697년(숙종 23) '이

88)『숙종실록』 권23, 숙종 17년 11월 25일 을해., 『(국역) 차충걸추안 : 도참을 믿고 생불을 대망했던 민중들의 심문 기록』, 최종성 외 옮김 (서울: 민속원, 2010).

영창 사건'이 있었다. 이영창은 자신의 스승인 중국인 승려 운부(雲浮)가 조선의 승려들과 함께 거사해 정씨, 최씨 두 진인을 각각 조선과 중국의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소문을 유포하며 동조자를 모집하였다. 두 명의 진인은 각각 정몽주와 최영의 후손으로 알려졌으며, 정씨 진인의 신이한 출생담을 유포하여 민중을 선동하였다.

이상의 변란은 계룡산의 주인인 정씨 진인을 찾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이 시기에 새로운 왕씨로 정씨가 대표성을 갖고 있었으며, 이것이 기축옥사를 답습하는 지속적인 변란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씨의 대두에는 당시 대만에서 성립된 정씨 왕조의 영향이 있었다. 이것은 예언에만 존재하던 정씨의 왕조교체가 실현된 사건으로, 정감록 예언의 현실성과 급박함에 대한 인식을 고조시켰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붕당정치의 여파로 권력을 탐하던 몰락 귀족과 조선 사회에 불만을 가진 평민들은 임박한 예언의 주인공인 정씨에 집중하는 것을 혁명의 성공 전략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이렇듯 계룡산과 정씨 진인의 조건을 갖춘 변란의 모델은 18세기 정감록이라는 이름이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여기에서는 무신란으로 불리는 1728년(영조 4) 이인좌의 난이 끼친 영향력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인좌의 난은 전국적으로 벌어진 조선 후기 최대 규모의 변란이었다. 규모가 큰 만큼 지배 체제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갖가지 사상적인 전략을 동원하였다. 다양한 저항 세력들이 참여했으나, 중심에는 중앙 권력을 두고 경쟁했던 소론과 노론이 있었다. 이들은 경종의 죽음에 영조와 노론이 관계되어 있다고 여기며, 영조의 왕위 계승을 문제 삼아 정권을 찬탈하려 했다. 그래서 이들은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는 혐의를 담은 괘서를 전국에 유포하여 민중을 선동하였다.

본격적인 난은 이인좌가 1728년 3월 15일 청주성을 함락하면서 시작되었는데, 목천, 청안, 진천을 거쳐 안성과 죽산으로 북상했다. 동시에 영남 지방과 호남 지방에서도 이인좌에 호응하여 동참하였다. 그러나 이인좌의 무리가 안성과 죽산에서 관군에게 격파되면서 초기에 진압되고 말았다. 이

때 정팔룡 혹은 정도령이라고 불리는 변산(邊山)의 장수가 반란군을 지휘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89] 왕권 교체의 목적을 둔 반란 사건에는 어김없이 계룡산의 주인인 정씨가 등장하고 있었다.

이인좌의 난은 초기에 진압되었으나 그 여운은 영조 대로 계속되었다. 이인좌의 난을 모델로 삼은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는데, 대부분 이인좌의 난에 연루되었거나 공모자의 후손들이었다. 그중에서 곽처웅이라는 자가 불온한 제문을 썼다는 혐의로 고발된 일이 있었다. 이 제문은 반란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이었는데, 그 대상이 계룡산이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 대개 그 14귀(句)의 제문(祭文)은 곧 역적(逆賊) 무리들이 거사하는 뜻으로 계룡산(鷄龍山)에 고하여 음(陰)으로 도와 줄 것을 빈 것이니, 말뜻의 흉패(凶悖)함이 전후의 흉서와 서로 안팎을 이루었다. 아! 무신년에 변고가 일어난 뒤로 흉역을 엄격히 토벌하고 성무(聖誣)를 통쾌히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법망에서 벗어난 무리들이 돌아보고 꺼리는 바가 없었다. 그래서 임금에게 마구 욕을 하고 당을 지어 모역(謀逆)하는 자가 뒤를 이어 일어나 지극히 근심스럽고 위태로웠으니 후회한들 또한 미칠 수가 없었다.[90]

이처럼 조선 왕실과 부침이 있었던 반란 사건들은 한양과 계룡산 사이의 경쟁으로 가시화되면서 광대한 역사 속에서 공시적인 상호성을 만들어 냈다. 일련의 사건들은 계룡산을 반란의 사상적, 물리적 중심지로 삼는 것이 권력의 점유를 가져온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그래서 역모 사건의 성공 여부는 공간을 갖추었는가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계룡산에 대한 의지와 목적의식은 권력 투쟁의 사건들 사이에 접점을 만들어 냈고, 반왕조적인 세력들 사이에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공간과 권력의 관계를 강화해 나갔다. 즉, 유사한 물리적 투쟁들이 계룡산에 누적됨으로써

89)『영조실록』권16. 영조 4년 3월 16일 병인.
90)『영조실록』권35, 영조 9년 8월 23일 신미.

공간이 갖는 의미를 중층적으로 생산한 것이다. 조선 왕실을 전복하려던 세력들이 정감록, 정씨, 계룡산이라는 공통의 모티프를 소비하면서 아직 성공하지 않은 투쟁의 힘과 염원이 누적되어 갔다. 조선 이후의 새로운 왕조에 대한 기대감이 공간에 응집되었고, 신왕토의 상징으로서 계룡산의 이미지는 점차 거대해지고 있었다.

2. 공간에 대한 기억과 서사적 경쟁

반란의 모의와 실행에서 드러나는 물리적인 힘의 충돌과 함께 계룡산을 거대한 힘의 공간으로 만든 것은 설화를 기반으로 한 서사적 투쟁이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추국 자료는 왕실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기록이라는 한계가 있다. 관찬사서의 특성상, 반란 세력의 죄질을 입증하는 일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왕실의 대응을 위주로 기록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전말은 왜곡되기도 했는데, 주로 심문을 통해 자백을 받아 내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고문에 지친 죄인들이 관의 입맛에 맞게 죄를 시인하곤 했다. 그러므로 반란 사건만으로는 계룡산을 지향하는 세력들과 조선 왕실의 권력 투쟁이 명확히 드러나기 어렵다. 왕실이 사법권을 발휘해 반란이 성공하기 전에 적발하여 소탕하였다는 기록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경쟁'이라기에는 힘의 불균형이 강조된다. 그러므로 반란이라는 물리적 투쟁만으로는 실제로 계룡산에 의탁하여 반왕조의 꿈을 꾸었던 정감록 신봉자들의 힘을 추측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설화이다. 설화는 '기록'이 아닌 '기억'으로, 당시 대중들이 공유하는 계룡산의 상징성을 반영하고 있다.

기억을 조명하는 이유는 공간이 이야기됨으로써 특정한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벨든 레인(Belden Lane)은 이러한 '장소의 서사성'(storied nature of place)을 강조하였다.[91] 사람들이 기억의 서사를 통해 중요한 장소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성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91) Belden C. Lane, *Landscapes of the Sacred* (New York: Paulist Press, 1988), 20.

는 공식적인 기록이 아니라 사진이나 시 등으로 소통되는 공간을 통해 성지를 이해하고자 했다. 계룡산의 성지화를 분석하는 작업에 있어서도 서사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리적 투쟁과 마찬가지로 이야기 속에서는 중앙과 정감록 신봉자 사이의 긴장이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왕실이 지우고 퇴색하고자 했던 기억과 오랜 세월 민중들에게 전수된 기억 간의 경쟁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시 민중이 기억하고 소비하는 혁명의 상징적 공간을 확인할 것이다.

1) 태조 이성계의 계룡산 신도 공사

태조는 조선을 건국한 지 한 달 만에 개경에서 한양으로의 천도를 천명했다. 고려왕조의 수도인 개경과의 결별을 통해 새로운 왕조를 선포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에는 개경 세력들을 무력화하고 조선의 통치 체제를 새롭게 세우겠다는 의지도 있었다. 천도의 필요성은 왕조의 권력이 땅의 기운과 연계되어 있다는 지기쇠왕설에 의해 정당화되곤 했다. 새로운 국가의 건설과 마찬가지로 자연재해나 전란 등 국정의 혼란은 왕기의 소진 때문으로 이해되었다. 왕기가 충만한 새로운 도읍지를 찾는 것은 같은 왕조 내에서도 전환의 동기로 작용하였다.

고려시대에도 지기쇠왕설을 근거로 개경에서 한양으로의 천도가 몇 차례 시도되었다. 고려 초기부터 성행했던 천도론은 공민왕 대의 대내외 상황에 의해 촉발되었다. 원나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일종으로 남경(南京) 천도가 논의되었으나 실행되지 못했다. 고려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번 천도론이 제기되었으나 우왕 대에 이르러서야 실현되었다. 당시 일본이라는 새로운 위협을 피해 내륙에 위치한 도읍으로의 이동이 대두되었다. 또한 반대파를 숙청하며 위태롭게 정국을 운영하던 우왕은 천도를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려 했다. 결국 1382년(우왕 8)에 한양 천도가 실현된 이후 복귀되었다가, 공양왕 대에 약 5개월 동안 한양으로 잠시 도읍을 옮기기도 했다. 공민왕 시해를 기점으로 폐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입지가 불안

했던 공양왕의 심리상태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이성계 세력을 의식하여 천도를 통해 정국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처럼 고려왕조에서 실제로 천도가 이루어진 곳이 한양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조선의 도읍지를 결정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개경의 쇠한 기운과 대조적인 한양의 충만한 왕기는 태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 특히 고려왕조가 막을 내리면서 개경에 대한 지기쇠왕설이 입증되었고, 굳이 개경을 조선의 도읍으로 삼아 고려의 망령을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개경의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조선의 한양 건도에 문제가 생겼다. 이때 새롭게 후보지로 등극한 곳 중 하나가 바로 계룡산이다.

태조의 태실(胎室)을 찾는 일을 담당한 권중화가 계룡산 도읍지도를 바쳤다. 이에 태조는 1393년(태조 2) 2월 김사형, 이지란, 남은, 무학대사를 대동하여 계룡산을 둘러보고 신도 건설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해 3월부터 계룡산 신도안을 중심으로 신도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신도안이 조선의 도읍으로 확정되어 가는 듯했으나, 12월에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면서 계룡건도의 목표가 무산되고 말았다. 신도 건설의 실패에 대해 두 가지 설명이 전해지는데, 관의 기록과 민의 기억 간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먼저, 『태조실록』은 이 사건이 풍수지리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었다고 기록한다. 경기좌우도관찰사 하륜은 풍수나 관상 등에 관심이 많았는데, 송나라 호순신의 지리신법을 근거로 계룡산이 도읍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상소를 올렸다.

> 경기도관찰사 하륜이 상언하기를, “도읍은 마땅히 나라의 중앙에 있어야 될 것인데, 계룡산은 지대가 남쪽에 치우쳐서 동면. 서면. 북면과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또 신이 일찍이 신의 아버지를 장사하면서 풍수 관계의 여러 서적을 대강 열람했사온데, 지금 듣건대 계룡산의 땅은, 산은 북서쪽에서 오고 물은 동남쪽으로 흘러간다 하니, 이것은 송나라 호순신이 이른바, ‘물이 장생(長生)을 파(破)하여 쇠패(衰敗)가 곧 닥치는 땅’이므로, 도읍을 건설하는 데 적당하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다[92]

하륜의 상소에 따르면, 계룡산의 지대가 남쪽으로 치우쳐 나라의 중앙에 있어야 할 도읍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과 지리신법으로 판단했을 때 명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놀랍게도 태조는 하륜의 상소를 받아드려 10개월을 투자한 신도 공사를 단번에 중단하였다. 구체적인 행정구역까지 계획되었던 계룡산은 도읍지 후보에서 밀려나고 말았다. 풍수지리적 판단에 의해 천도 공사가 무산될 만큼 조선 왕실에서는 '적합한' 땅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왕권과 국가의 토대가 땅에서 기인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었으며, 왕기가 충만한 땅을 선택하는 것이 왕권과 직결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기운이 왕성한 공간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생명력 또한 장담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건국 초기라는 특수한 상황과 결부되어 땅과 풍수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하륜의 상소로 신도 공사가 중단된 이후, 고려시대에는 언급도 되지 않던 지리신법이 조선조의 4대 풍수고시과목에 들기도 하였다.[93] 이처럼 『태조실록』은 풍수지리라는 당대의 권위 있는 논리를 들어 계룡산 신도 공사 실패의 합리적인 측면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을 통해 유추한 민간의 기억은 이 사건을 정감록 예언과 결부시키고 있다.

> 처음에 태조가 계룡산(鷄龍山) 아래에 터를 보아 공사를 시작했는데, 꿈에 한 신인(神人)이 나타나 하는 말이, "이곳은 바로 전읍[奠邑-정(鄭) 자의 파자(破字)]이 의거할 땅이지 그대의 터가 아니니, 머무르지 말고 빨리 가라." 하니, 곧 태조가 철거하고 한양으로 천도하였다.[94]

여기에는 계룡산이 정씨에게 허락된 왕토라는 공간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태조실록』에서 계룡산은 풍수지리적 허점을 가진 도읍지 후보로 언급

92) 『태조실록』 권4, 태조 2년 12월 11일 임오.
93) 지종학, 「하륜의 풍수와 신도안 입지의 비판적 검토」, 『한국민족문화』 53 (2014): 185-186.
94) 이 설화는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태조조고사본말(太祖朝故事本末)」과 『순오지(旬五志)』에 실려 있다.

되나, 『연려실기술』에서는 정씨의 땅이라는 정체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태조의 신도 공사가 시행되던 1393년과 『연려실기술』의 저자 이긍익이 편찬을 시작한 1779년 사이, 약 400년 동안 계룡산은 조선을 망하게 할 새로운 권력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이씨 왕조를 잇는 정씨 왕조의 출현에 대한 예언이 민중에게 널리 퍼졌다는 배경도 고려할 수 있다. 동시에 조선 왕조의 피할 수 없는 망국의 운명을 암시하고 있다. 『연려실기술』에 이어지는 내용은 예언의 필연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 도선(道詵)의 비기(祕記)에, "왕씨를 대신할 자는 이씨이니, 한양에 도읍할 것이다." 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조에서 한양에 오얏나무를 심고 오얏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면 곧 찍어 내어 그 기운을 억눌렀다. 이때에 이르러 과연 들어 맞았다.

『연려실기술』은 계룡산과 정감록의 논리를 민간이 어떻게 합리화하는지를 보여준다. 계룡산을 도읍으로 할 정씨의 등장에 대한 근거로 역사적 선례를 사용하고 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왕조의 계승에 대한 예언이 역사적으로 실현됨으로써 조선 이후의 예언에 대한 신빙성도 극대화되고 있다. 필연성을 강조한 서술은 계룡산을 조선 왕조와 경쟁하는 새로운 권력의 상징으로 만들고 있다.

정감록의 유포로 인해 계룡산을 정씨 권력의 상징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태조의 신도 공사에서 '실패한 도읍지'에 대한 신비화가 발생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관찬사서가 갖는 역사적 '사실성'보다 민간이 인식하는 기억의 '진실성'이 드러나는 사례이다. 실제로 계룡산 신도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두 기록 중 어떤 것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같은 사건에 대한 상이한 기록을 통해서 당시 계룡산을 둘러싼 권력 투쟁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순오지』[95], 『연려실기술』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당대인들의 선택을 받고 계속해서 전해지던 구전설화라는 점에서, 민간이 가진 인

95) 『순오지해제』, 이민수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1971), 35.

식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태조와 계룡산 건도의 설화는 20세기에도 전승되면서 민간의 기억에 깊이 자리한 공간관을 보여준다. 『비난정감론진본(批難鄭鑑錄眞本)』을 발간한 현병주는 「감결」의 서두에서 자신이 접한 한 설화를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은 조선 태조가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니, 계룡이 임자 있는 땅이며, 이조 5백 년 후에 정씨가 들어설 도읍지라는 것이다.[96] 도읍지 계룡산에 대한 일화가 정감록 예언과 결부되어 재구성된 뒤 20세기까지 보편적인 기억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희정은 계룡산 지역에 현전하는 60가지의 설화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읍 관련 설화 중에서 특히 〈신도안과 이성계〉 유형이 널리 전승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97]

정리하자면, 태조의 계룡산 신도 공사의 전말을 기록한 『태조실록』과 『연려실기술』은 왕조의 건설과 유지에 있어서 공간이 권력의 발원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륜의 한 마디에 10개월의 천도 계획이 중단되었다는 『태조실록』의 기록은 태조가 도읍지를 선정할 때 풍수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나라가 망할 지세라는 평가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공간이 왕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믿음마저 엿볼 수 있다. 여기에서 나라가 망할 지세라는 평가는 『연려실기술』의 기억과 연결되어 민간에서 인식하는 신왕토로서 계룡산의 의미를 보여준다. 태조의 꿈 해몽과 관련된 설화에서 계룡산은 정씨에게 합당한 권력 공간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설화가 민중들의 선택을 받아 가장 보편화된 설명체계로 통용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 조선시대에 계룡산이라는 공간이 갖는 체제변혁적인 잠재력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민중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은 사건의 진실성에 근거하자면, 태조의 계룡산 신도 공사가 실패한 것은 처음부터 이씨 왕조에게 허락되지 않은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정씨 왕조의 운명적 도래에 대한 예언이 반영되어 있고, 이에 대한 민중들의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 마치 조선 건국 때부터

96) 현병주, 『批難鄭鑑錄眞本』 「鑑訣」, 摠批(『鄭鑑錄集成』, 383-384).
97) 정희정, 「계룡산 설화에 나타난 민중 정서」, 『역사민속학』 20 (2005): 383-384.

계룡산을 도읍으로 한 신왕조가 태동하고 있었으며, 계룡산에 응집된 반왕조적 염원이 태조 이래로 계속해서 권력 투쟁을 부추기게 되었다는 민중들의 관점에서 재편성된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감록의 예언을 고려하면, 나라를 망하게 할 도읍이라고 평가한 하륜의 풍수가적 발언이 묘한 공명을 이루는 듯하다.

2) 조선시대 정감록 대응과 흥선대원군의 계룡이도설

본 항에서는 18세기 조선 왕실의 정감록 및 관련 세력에 대한 대응책과 조선말의 상황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정감록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추정해 볼 것이다. 정감록의 여러 요소들 중에서 계룡산이 왕실과 직접 대립하는 권력의 상징이 된 사실을 보임으로써, 공간이 곧 권력 투쟁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조선 건국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 계룡산과의 피할 수 없는 투쟁은 기축옥사가 모티프가 된 역모 사건들을 통해 가시화되었다. 민심 깊숙한 곳에서는 정감록과 계룡산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계룡산과 정씨를 강조한 유사한 예언과 조직적인 실천들이 반복되면서 조선 왕실의 이목을 끌었다. 조선 왕실과 정감록의 조우는 1739년(영조 15) '이빈(李濱) 사건'으로 시작되었다.

이빈 사건은 평안도 삼등현(三登縣)에서 북방 변경의 주민들이 무단으로 국경을 넘었다가 체포된 일이다. 사건의 수인(囚人)으로 지목된 이빈이라는 자를 문책하니, 백두산 아래에 백여 개의 마을이 있고 그 우두머리가 김거사(金居士)라는 인물이라고 실토했다. 이빈 등의 무리는 이상세계인 '별건곤(別乾坤)'을 믿는 종교적 사상을 공유했고, 철옹성을 그들이 찾는 별건곤이라고 여겨 국경을 넘는 범죄를 저질렀다.

사건을 들은 영조는 이빈 사건을 중앙으로 불러 올려 조사할 것을 명하였다. 영조가 이빈 사건에 주목한 이유는 우선 철옹성의 실체를 밝히고자

함이었다. 이미 함경도 지방에는 1735년부터 철옹성에 대한 소문이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국경을 넘었던 김성백의 무리가 있었다.[98] 그러므로 이빈 사건은 김성백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함경도에 퍼진 특정 공간에 대한 예언을 동기로 삼고 있었다. 또한 자치 형태의 철옹성이 국가 권력의 통제를 이탈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경계하였다. 그래서 좌변포도대장 구성임(具聖任)과 우변포도대장 김흡(金潝)에게 사건의 심각성을 들어 이빈을 비롯한 죄인들에게 장살(杖殺)을 명하였다.

> 이른바 《정감록(鄭鑑錄)》이 유제(惟悌)라는 도적에게 있다고 핑계를 대지만 이 또한 매우 간악하다. 그 밖에 신문해야 할 것은 문목(問目)을 더하라. 이런 간악한 자는 장살(杖殺)하여 용서하지 말아야 하니 각별히 철저히 신문하라.[99]

『승정원일기』를 보면, 영조가 이빈 사건을 중대하게 취급했던 또 다른 이유를 알 수 있다. 변경의 구체적인 동기로 작용하는 『정감록』과 같은 예언서의 존재를 포착한 것이다. 이미 영조 대에 함경도 지역에서 문헌 형태의 『정감록』이 유포되고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조정에서는 이빈 사건의 내막을 『정감록』에서 찾으려 했다. 하지만 문책 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이들이 『정감록』만을 따른 것은 아니고 『역년기(歷年記)』와 같은 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구성임이 말하기를, 『정감록』의 근본은 조유제(趙裕濟)에게서 나왔는데. (중략) 조유제가 정감록과 역년기를 볼 수 있었다 합니다."라 했다.[100]

이상의 심문을 통해 당시 정감록을 비롯한 여러 비기들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 권력과 무관한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을 가진

98) 김신회, 「'정감록' 기억의 형성과 예언서 출현」, 236-240.
99) 『승정원일기』 영조 15년 6월 9일 갑신.
100) 『승정원일기』 영조 15년 6월 10일 을유.

무리들에게 이러한 비기들이 촉발제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중앙에서는 사건과 가장 밀접한 사상적 근원으로 정감록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빈 사건은 결국 '정감록의 일(鄭鑑錄事)'이라고 정리되었다.

> (형조판서) 송인명이 말하기를, "(중략)《정감록(鄭鑑錄)》의 일을 도신으로 하여금 엄히 조사하고 조사가 끝난 뒤에 변경(邊境)에서 효시하게 함으로써 서북의 변경 백성에게 답하기를 상께 청하려고 하였습니다." (중략) (우변포도대장) 김흡이 말하기를, "...게다가 북관은 몇 해 전부터 요설(妖說)과 와언(訛言)에 변방 백성이 선동되고 있는데 이는 작은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정감록》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김성항도 잡아와 끝까지 캐묻고, 조유제(趙裕齊)는 북도의 방백에게 분부하여 반드시 붙잡아 엄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하니.[101]
>
> (밑줄은 필자의 강조)

반왕조적인 사건의 배후를 정감록으로 지목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조직적인 실천을 유발할 만큼 『정감록』이 당시 민심을 감화시키고 있었으며, 유사한 비기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갖춰 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조선 왕실은 정감록을 중앙 권력의 대항마가 될 무언가로 판단했다. 그래서 이빈과 사건관계자들을 엄히 다스려 별건곤을 꿈꾸는 무리의 본보기로 삼았다. 같은 해 7월 29일 이빈 등 18명은 함경도에서 모두 효시되었다. 이것은 중앙 정부의 지역 지배력 확립과 정감록 등의 비기 문화의 제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린 처사였다. 정감록은 관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을 때부터 국가 권력을 위협하는 무언가로 관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빈 사건은 문헌 형태의 『정감록』이 최초로 출현한 사건인 동시에, "적어도 정부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역모와 관련된 사건"[102]이었다. 조선 왕조와 정감록의 지난한 힘겨루기에 대한 최초의 역사

101) 『승정원일기』 영조 15년 6월 13 무자.
102) 김탁, 「정감록 출현의 역사적 과정과 의의」, 20.

적 기록이 된 것이다.

영조 대에는『정감록』이 다양한 제목으로 유통되었다.『영조실록』에 따르면 평안도와 함경도 지방에서 “정감이 참위한 글”로서 유포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에 우려를 표하는 영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이때 서북 변방 사람들이 정감(鄭鑑)의 참위(讖緯)한 글을 파다히 서로 전하여 이야기하므로 조신(朝臣)이 불살라 금하기를 청하고 또 언근(言根)을 구핵(究覈)하고자 하기에 이르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이 어찌 진시황(秦始皇)이 서적을 지니는 것을 금한 것과 다르겠는가? 정기(正氣)가 충실하면 사기(邪氣)는 실로 절로 사라질 것이다. 정기를 도우려면 학문이 아니고서 어찌하겠는가?" 하고 (중략)[103]
>
> (밑줄은 필자의 강조)

여기에는 당시 조정의 정감록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 영조는 정감록을 금서로 지정하고 불태우라는 조정의 청원을 거절하고 있다. 이것은 영조가 문서의 유통보다 사상의 전파를 더욱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정감록의 존재를 포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잠재적인 파급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초기의 대응을 보여준다. 영조는 정감록을 바른 기운과는 대조되는 불순한 기운으로 보았다. 바른 기운은 학문을 통해 발흥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은 바로 국가운영원리인 유학을 의미한다. 영조는 유학을 강화함으로써 정감록과 같이 중앙 권력에 해가 되는 정신의 싹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진혁은 18세기말 조선의 정감록 대응책을 연구하며, 정조가 유학과 정감록을 ‘길항관계’로 인식했다는 점을 지적한다.[104] 그러나『영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이미 영조 대에서부터 유학과 정감록을 대립관계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빈 사건을 통해 정감록의 실체가 확인되자마자 조선의 운영 원칙인 유학과의 경쟁 구도가 시작된 것이다.

---

103)『영조실록』권 50, 영조 15년 8월 6일 경진.
104) 정진혁,「조선 후기 정감록 결사조직과 변혁운동」, 239.

유학과 국가의 운명을 동일시하는 태도는 정조 대에 보다 구체화되었다. 1782년 문인방 사건을 시작으로 1785년, 1787년 등 재위기 초반에 정감록과 관련된 역모 사건을 겪은 정조는 정감록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국가 권력의 강화라는 과제를 안은 정조에게 정감록은 주요한 걸림돌로 보였던 것이다. 즉, 정조는 제반사항을 파악하여 정감록을 반사회적인 사상으로 이해했다. 정조는 정감록을 '이단(異端)', '좌도(左道)', '사도(邪道)', '사설(邪說)' 등 '정학(正學)'과 대비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105] 비록 정감록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악하려고 했던 정조였으나, 유학과의 관계 속에서 정감록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 했던 것은 영조 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여전히 길항관계로 사태를 파악한 정조는 정감록의 유행 원인을 쇠약해진 유학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감록 사건의 죄인들을 다루는 방식은 영조 대와 차이가 있었다. 영조가 이빈 사건의 죄인 18명을 효시한 것과 달리, 정조는 교화주의에 입각하여 죄를 물었다. 주동자는 엄격히 처벌하는 대신, 그 외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처분을 내렸다. 정조 대 발생한 6건의 정감록 사건에 대해서 89명의 관련자 중 18명을 사형, 10명을 조사 중 사망에 이르게 하는 한편, 24명을 유배, 8명을 신분 강등, 24명을 석방, 5명을 타관에 이관하는 등 처결에 차등을 두었다.[106] 처결 내역은 죄인의 교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처벌보다 유학적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여긴 것이다.

백성을 유학적 인간으로 교화하여 사도를 소멸시키겠다는 정조의 의지는 천주교 대응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천주교도 정감록과 같이 이단, 좌도, 잡술로 인식되었다. 정조는 "정감록 참위설, 천주학이 좌도"[107]라고 공표하며 유학 외의 사상은 모두 국가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규탄했다. 하지만 18세기 왕실의 교화주의 대응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유학과의 관

105) 정진혁, 「조선 후기 정감록 결사조직과 변혁운동」, 230-231.
106) 정진혁, 「조선 후기 정감록 결사조직과 변혁운동」, 234-240.
107) 『일성록』 정조 11년 9월 2일 병인.

계 속에서 정감록 성행의 원인을 파악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는 민심을 고려하지 않은 인식으로,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처사였다. 사실상 유교적 질서만을 강요하는 "체제유지적 성격"[108]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말 왕실은 교화주의적인 대응책의 무력함을 깨달은 후, 정조와는 사뭇 다른 대처를 보여주었다. 보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정감록에 맞섰는데, 불온한 사상의 발원지인 계룡산을 국가가 선점하고자 했다. 정씨의 신왕토를 점령함으로써 정씨 출현의 예언을 막고자 한 것이다.

이에 흥선대원군은 팔도에서 유통되던『정감록』을 수거하여 불태우고, 계룡산에 왕래하거나 거주하는 것을 엄금했다.[109] 이러한 대응책은 18세기말 정조의 뜻과 전혀 다른 것이었다. 정조는 참서를 일일이 제거하는 지엽적인 방법이 아니라 '숭유중도崇儒重道)'를 근본적인 방책으로 여겼기 때문이다.[110] 비교적 과격한 방식의 정감록 대응은 교화주의라는 온건한 접근으로는 막을 수 없을 만큼 정감록이 성행하게 되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계룡산의 출입을 금지했다는 것에서 굵직한 역모 사건 외에도 계룡산 안에서 모의가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빈번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조선 왕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은 이처럼 계룡산이 반왕조적 권력의 상징으로 보편화되어 가는 현상이었을 것이다.

계룡산을 둘러싼 조선말의 긴장상태를 읽을 수 있는 설화가 바로 흥선대원군의 계룡이도설이다. 혼란기에 동요하는 민심의 근원을 정감록으로 여긴 흥선대원군은 계룡산을 이씨의 공간으로 점령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여겼다. 이에 흥선대원군은 계룡산을 도읍으로 삼아 계룡이 정씨의 땅이라는 오랜 전설을 압승하려고 했다.[111] 나아가 태조의 신도 건설 중단이 정감록이 예언한 조선의 흥망성쇠의 증거처럼 활용되었던 설욕을 갚으려는 의도

108) 정진혁,「조선 후기 정감록 결사조직과 변혁운동」, 239.
109) 村山智順,『朝鮮の風水」(民間信仰 第二部)』(京城: 朝鮮總督府, 1931), 852-854.
110) 정진혁,「조선 후기 정감록 결사조직과 변혁운동」, 233.
111) 대전시지편찬위원회가 기술한 '흥선대원군의 계룡이도설'은 박제경(朴齊絅)이 1886년에 저술한「근세조선정감(近世朝鮮政鑑)」의 내용을 이능화의「朝鮮基督敎及外交史」에서 인용한 것을 재인용하였다.

도 있었다.

> (近世朝鮮政鑑). 大院君欲移都雞龍 以讖書에 有鄭氏代李氏之兆ᄒᆞ니 相傳公州雞龍山은 爲鄭氏之都라 大院君이 欲移都以壓勝ᄒᆞ야 發役夫ᄒᆞ야 開基掘地ᄒᆞ야 得石礎甚多ᄒᆞ고 訛言空中에 有人言호ᄃᆡ此는 鄭氏千年之宅이니 犯者는 必大禍라 ᄒᆞ니 大院君이 知其爲妄。而以財政匱乏ᄒᆞ야 難於告成으로 遂止ᄒᆞ니라[112]

하지만 흥선대원군의 도읍 건설 시도는 태조와 유사한 형태의 설화를 양산했다. 신도 건설의 터에서 출토된 주춧돌에서 “이 곳은 정씨의 청년지택이니, 이 곳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큰 해를 입을 것”이라는 글귀가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흥선대원군은 해당 유언비어를 망언이라고 여기고 공사를 강행했으나 다른 문제에 봉착해 결국 중단하고 만다. 당시 왕실의 재정이 궁핍해지면서 이도 공사의 성공 여부를 우려하는 관료들 때문이었다. 경제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했지만, 태조에 이어 이씨의 계룡산 입성이 재차 실패하고 말았다. 이로써 조선은 개국부터 함께한 계룡산이라는 운명적 경쟁 상대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민중은 두 번의 천도 실패를 왕조의 운명을 예언한 정감록의 영향으로 이해하였을 것이다. 조선 왕조를 압도할 새로운 권력의 근원이라는 계룡산의 이미지가 한층 부각된 사건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비록 계룡산으로 도읍을 옮기는 일은 실패했으나, 후기 조선 왕실은 계룡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계룡산을 국가 체제 안에 편입시키고자 했다. 이를 위해 흥선대원군은 태조가 신도안에 세운 계룡신사(鷄龍神祠)를 고종 즉위년에 폐하고 중악단(中嶽壇)으로 고쳤다. 고종 역시 대한제국의 개국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존 계룡산의 신원사(神院寺)를 신원사(新元寺)로 개칭했다.[113] 이것은 기존 왕국의 500년을 끝내고 여기에서 새로운

112) 이능화, 『朝鮮基督教及外交史』 下編, 31.

113) 신원사의 개칭과 관련해서 문헌 자료가 확실하지 않다. 『고종실록』에도 관련된 내용이 없다. 다만, 「계룡산기」에서 신원사 만우 노화상의 입을 빌려 신원사 개칭의 유래를 소개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각주 121번을 참고할 수 있다.

제국의 신기원을 열겠다는 의미였다. 이는 정감록의 조선 500년 위기설을 의식한 결단이라고 보인다. 쇠락기를 걷는 조선의 운명을 전환하기 위해 정감록의 예언을 조선 왕실에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왕후 민비(閔妃) 역시 계룡산을 의식하여 조선의 운명을 개진해 보려 했다. 민비는 승려 무리를 앞세워 연천봉 등운암(謄雲庵)의 옛터에 압정사(壓鄭寺)를 세웠다. 그 목적은 '압정', 즉 이름 그대로 정씨의 왕기를 누르기 위함이었다. 계룡산 연천봉 바위에는 '방백마각 구혹화생(方百馬角 口或禾生)'이라는 글귀가 있는데, 이를 조합하면 '사팔이 국이(四百八十二 國移)'가 된다. 해석하면 '조선은 개국 후 482년 후에 망한다'는 뜻이다. 연천봉의 글귀는 정감록 예언을 뒷받침하며 조선을 잇는 새로운 왕조 출현의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연천봉 암자를 비롯한 계룡산의 존재를 불안하게 생각한 민비는 공간을 물리적으로 선점함으로써 비가시적인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이렇듯 조선말 왕실의 간절한 노력은 계룡산을 신왕토로 신봉하고 있었던 당시 민심을 짐작케 해 준다. 정감록이 걷잡을 수 없이 유통되고 반란 사건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왕실이 인식한 근원적인 경쟁 상대는 문헌으로서의 정감록도, 반사회적인 무리도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을 생산해 내는 반왕조적인 권력의 용광로인 계룡산을 통제하는 것이 민심을 바로 잡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조선말 왕실의 계룡산에 대한 주목도는 정감록을 유교와의 길항관계로 보고 교화하고자 한 18세기말의 안일한 대처와 구분된다. 계룡산에 누적되는 권력의 힘을 깨달은 조선말에 이르러서는 유학을 내세우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공간에 침투하는 방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는 계룡산을 지향하는 무리가 거대해지고 이씨와 정씨의 대립구도가 심화되고 있던 당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계룡산으로 모인 무리를 해산시키고 신왕토로서의 권위를 해체하는 과격한 대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일찍이 민중들 사이에서 왕조교체의 산실로 여겨진 계룡산은 이제 왕실의 공간관에도 깊게 침투하게 되었다.

정감록에 대한 설화적 기억은 당시 사람들이 가진 조선을 대체하는 계룡산에 대한 상상을 보여준다. 특히 두 차례의 계룡산 건도 실패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을 통해 민간의 심상 안에 구축된 새로운 왕조의 청사진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설화적 기억들은 정감록을 재생산하고 예언의 실현가능성을 증폭시켰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씨를 대망하는 민심은 계룡산으로 집결하게 되었다. 조선조의 물리적인 투쟁과 함께 내러티브적인 투쟁을 통해 '정씨의 땅'으로서 계룡산의 정체성이 굳어졌다. 설화를 통해서 생성되고 전승되는 조선, 이씨, 한양과의 경쟁 덕분이었다. 이야기 속에서 계룡산은 반복되는 투쟁에서 끝내 승리를 거머쥐며 잠재적 권력 공간의 힘을 과시하였다.

Ⅳ. 권력지향적인 신종교 중심지로서 계룡산

1. 신도안 종교촌의 형성으로 본 권력 공간

1) 신도안 종교촌의 발생 배경

조선말의 혼란이 예언과 정씨 진인의 출현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하던 중, 조선 왕조가 몰락하면서 정감록의 실현이 가시화되고 있었다. 전환기에 민중들은 후속 권력의 중심지인 계룡으로 몰려들었다. 전국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계룡산 신도안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1918년 이전에 신도안 일대의 인구는 70호 350여 명이었으나, 1921년에 610호 2,400여 명, 1924년 1,575호 6,900여 명으로 급증했다.[114]

집단 이주의 첫 번째 요인은 일제강점기라는 초유의 '국가 부재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상황을 예언의 맥락에 대입하면, 진인 출현 직전에 발생하는 흉조의 일종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오랑캐의 침입이나 도적떼의 출현 등 정감록에 나타난 이민족에 의한 수탈이 일제 치하의 민족적인 고난과 동일시된 것이다. 그래서 계룡에서 열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염원은 민족의 구원과 독립국가의 출현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게 되었다. 실제로 정감록 예언을 일제강점기의 도래와 종식에 대한 단서로 활용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가정(假政) 6년 후에 인정(仁政)이 온다"는 정감록 참설이 유포되어 민족해방의 때를 유추하기도 했다.[115] 이때 "가정"은 왜정이고 "인정"은 미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즉, 일제가 물러나고 미일전쟁이 일어난 뒤에 독립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114) 한국종교학회, 『한국 신종교 실태조사보고서』 (서울: 한국종교학회, 1985), 499.
115) 신일철, 「정감록 해제」, 『한국의 민속·종교 사상』, 이병도 외 옮김 (서울: 삼성출판사, 1978), 279.

민중은 한양의 지맥을 계승하는 계룡산 신도안을 중심으로 독립국가가 세워질 것으로 믿었다. 현 정권을 부정하기 위해 사용된 신왕토 모티프가 이 시기에는 민족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조선시대 반란 세력이 예언을 퍼뜨려 민중을 선동했다면, 독립에 대한 열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도 정감록의 요소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곤 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3·1 운동을 기점으로 확산된 소문이었다. 1919년 3·1 운동을 전후로 계룡산에서 새로운 세상이 곧 열린다는 이야기였다.[116] 계룡 모티프가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 외에도 조선시대 정감록 사건과 공유하는 특징은 이러한 소문을 신비화하는 특별한 발화자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승려와 술사를 대동했던 반란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무녀, 복자, 종교유사단체를 중심으로 이러한 예언이 선전되었다. 독립이라는 민족적 차원의 염원은 예언에 대한 전국적인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계룡산으로의 이주가 과거 예언 모티프의 연속이자 민족적 공감대의 형성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1923년 동아일보에서 연재한 계룡산기(鷄龍山記)[117]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계룡산은 정씨의 신왕토”라는 명제가 분명히 드러나며, 공간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보여준다.

> 저주할 휴전기념일에 평화의 왕을 찾아서
> 정도령은 있는가 없는가
> 가을에 싸인 고찰 동학사[118]

116) 善生永助, 『(調査資料 第38輯) 生活狀態調査(其五)』 (京城: 朝鮮總督府, 1933), 255.
117) 善生永助, 『(調査資料 第38輯) 生活狀態調査(其五)』 (京城: 朝鮮總督府, 1933), 255.
118) 계룡산기(1).

신은사[119]의 개명은 광무제의 칙령
'신은'을 신원으로 고친 유래
어서 가자 정씨의 새 도읍터로[120]

계룡산기의 기자는 계룡산 일대를 답사하면서 자연경관뿐 아니라 신도안 거주민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고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국적 이주의 배경에 정감록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단서가 등장한다.

정도령을 기다리는『신도(新都)』의 시민
이곳을 어디라 하면 좋을까
집집에서 나는 글 읽는 소리[121]

적어도 계룡산이라는 공간을 예언의 맥락에서 인식하는 사고가 당대에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보고이다. 조선시대에는 참서로 은밀하게 통용되던 예언의 요소들이 이 시기에는 집단 이주라는 사회적 현상을 해석하는 가장 합리적인 근거로 여겨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계룡산 응집을 주시했던 조선총독부는 어용학자들을 동원해 현상의 배경과 원인을 조사하였다. 그중 무라야마 지준이 1910년대 후반의 계룡산 이거(移居)에 대해 연구한 내용에서도 정감록의 주요 모티프들의 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

---

119) 계룡산기에서는 신원사의 본명을 '신은사(神恩寺)'로 소개한다. 태조의 계룡산 신도 공사의 중단과 관련된 설화에서 유래한 것이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때에 어떤 떡 장수 노파가 태조에게 '계룡은 정씨의 땅이고 한양이 이씨의 땅'이라고 말하고 홀연히 사라졌다고 한다. 이 일을 계기로 태조가 한양을 도읍으로 삼았고, 그 노파(神)의 은혜(恩)를 기리고자 신은사라고 불렀다고 한다. (조동길, 「1920년대의 계룡산(2)」,『웅진문화』14 (2001): 41.) 앞서 3장에서 인용한『연려실기술』의 태조의 계룡 건도 설화와 다른 버전이다. 다만, 태조에게 언질한 노파를 '계룡할머니' 혹은 '계룡할무니'라고 하는데, 계룡산에서는 이러한 할머니산신에 대한 숭배가 발견된다.

120) 계룡산기(19).

121) 계룡산기(22).

> 특히, 1910년 조선이 개국 482년 만에 망하자 연천봉상의 석각 참구, '방백마각 구혹화생', 즉 '사팔이 국이'[122]가 적중되었고, 1911년 호남선 개통으로 초포행선설이 실현되었다는 사례를 들면서 여러 참문이 신앙적으로 실증되어 가는 것을 보면, 신왕조가 나타나서 계룡산에 국도(國都)를 정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계룡신도신앙과 이곳으로 이주하는 근거이다.[123]

산천의 맥이 한양에서 500년을 머물 것이라는 정감록의 예언이 실증된 것이 계룡산 이주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예언의 임박함은 도읍지 건설과 진인의 출현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강화함으로써, 변란에 사용되던 두 모티프들을 조선말보다 신비화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공간에 의탁하려던 권력의 성격도 조금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왕권을 찬탈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강했다면, 일제강점기에는 예언의 힘 자체를 믿는 종교적 성격이 가미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의 정감록 사건은 권력지향적인 주도자와 그를 따르는 민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예언을 신봉하는 자들도 계룡을 지향하는 세력과 십승지로 숨어 들어가는 일반 세력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반란의 주도 세력과 규모가 달라지면서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당쟁의 희생양이었던 몰락 귀족이 복권을 목적으로 반란을 모의했던 조선 중기와 달리, 후기에는 평민 지식인이나 동학계가 혁명을 선도하였다. 특히, 무속인과 같은 종교인이 전면에 나서서 민심을 사로잡곤 했다. 이러한 경향성은 일제강점기라는 말세적인 상황과 얽혀 종교집단과 신도들이 계룡산에서 종교촌을 형성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었을 것이다.

---

122) 계룡산 연천봉 바위에 새겨진 글귀로, '방백마각 구혹화생(方百馬角 口或禾生)'을 조합하면 '사팔이 국이(四百八十二 國移)'가 된다. 해석하면 '조선은 개국 후 482년 후에 망한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조선을 잇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내재해 있다.

123) 村山智順,『朝鮮の風水」, 855-856.

2) 종교촌의 구성과 계룡산의 구심력

[표 5] 신도안 종교계통구성 내역(1935년~1984년)[124]

존재시기	종교계통구성 내역
1935년	東學系 類似宗教團體 2개, 佛教系 類似宗教團體 1개, 崇神系 類似宗教團體 1개 (3개 계, 4개 유사종교단체)
1964년	불교계통 35개, 기독교계통 3개, 천주교계통 1개, 유사종교계통 18개, 선교계통 1개 (5개 계통, 58개 종교)
1975년	불교계 62개 종단, 무속계 20개 종단, 동학계 7개 종단, 단군계 2개 종단, 도교계 2개 종단 등 (5개 계, 104개 종단)
	불교계 62개 종단, 무속계 20개 종단, 동학계 7개 종단, 기독교계.유교계 4개 종단, 단군계 2개 종단, 도교계 2개 종단, 물법계 1개 종단 등 (7개 계, 104개 종단)
	東學的 宗教 116개(仙道的 新興宗教集團 14개, 儒教的 新興宗教集團 12개, 佛教的 新興 宗教集團 90개), 西學的 宗教 8개 (4개 적, 124개 신종교집단)
1976년	불교계 56종, 무속계 17종, 동학계 6종, 유교계 4종, 기독교계 2종 (유사종교 85종), 불교3개, 동학3개, 기독교2개(8개 계, 93개 종)
1983년	기독교 4종, 불교 35종, 잡교(雜教) 10종 (4개 종교, 49개 종)
	교회, 교회 관련 종교, 절, 유교, 천도교계통, 동학, 선교계통 (6개 계통)
1912년-1984년	正易界 2개, 東學界 4개, 類似佛教界 7개, 圓佛教界 1개, 檀君教界 3개, 基督教界 4개, 甑山道界 3개, 天地大安教 1개, 巫俗界 3개, 個別宗團界 2개 (10개 계, 30개 종교)

다양한 신흥종교의 계통이 생겨나면서 각지에서 재산을 처분하고 고향을 떠나 계룡산으로 이주한 사람들에 의해 신도안 종교촌이 생겨났다.[125] 1919년경부터 신도안에 부락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1924년 김연국과 시천교도의 대규모 이주를 계기로 증폭되었다가, 1984년에 일명 '6·20 사업'의

124) 최원회, 이근화. 「계룡산 신도안 종교촌의 변천 및 종교구성 연구」, 251.
125) 村山智順, 『朝鮮の類似宗教)』, (京城: 朝鮮總督府, 1935), 943.

시행으로 폐쇄되기까지 신도안 종교촌을 구성하는 종교계통은 [표 5]와 같다. 연구자들의 계통 분류 방식과 조사 결과의 차이로 인해 같은 시기의 신종교 구성에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1935년 이후 계통과 종단의 수가 증가하여 1975년에 전성기를 누리다가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6·20 사업이 시행된 1983년과 그 직후에도 신도안에 남은 신종교집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26] 이처럼 다양한 종교계통이 한 공간에 공존할 수 있었던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도안으로의 동시다발적이고 지속적인 이주가 가능했던 것은 계룡산의 독특한 구심력의 존재를 가늠케 해 준다. 이들이 공감했던 힘의 정체는 조선시대부터 누적된 체제전복성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신도안의 종교집단은 정감록신앙을 갖고 있거나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127] 신종교집단은 예언을 의식하고 새로운 시대의 중심지인 계룡산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던 것이다. 정감록의 영향을 받은 종파로는 정도교, 세계일가공회, 일심교계파, 천도교, 천지대안도, 단군교, 미륵증산교, 천지대안도, 정도교대본원, 미륵산교 등이 있다. 이중 일부에서는 조선시대 정감록 사건의 핵심 모티프였던 정씨와의 동일화가 발견된다. 정씨와의 연관성은 계룡산 이주의 동기가 되며, 두 모티프의 결합을 통해 종교적 권위를 세우고자 했던 전략을 읽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순화가 창시한 정도교이다. 정도교는 1917년 창시된 기독교계 신흥종교로, 이순화가 1924년에 서울을 떠나 계룡산에 정착하면서

126) 비슷한 시기 전국 단위의 신종교 현황은 1981년 출판된 탁명환의 저서『서울 계룡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탁명환은 신종교계통을 11개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1) 동학계 (2) 증산계 (3) 정역계 (4) 단군계 (5) 일관도계 (6) 일색외래계 (7) 각세도계 (8) 물법계 (9) 무속계 (10) 불교계 (11) 기독교계. (탁명환,『서울 계룡산』(서울: 국종출판사, 1981), 47-52.)『서울 계룡산』에는 당시 신종교가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를 고발하는 비판적인 어조와 집필의도가 강하게 드러난다. 신종교 교주들의 성 착취와 경제적 수탈 등의 병리현상을 지적하는 시대적 흐름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저작에는 특정 종교를 과도하게 지탄하는 서술이 두드러진다. 본 논문에서는 지나친 평가가 나타난 서술은 지양하고, 신종교의 성격과 특징을 포착한 조사 결과에 주목하였다.

127) 탁명환,『서울 계룡산』, 58.

이름을 정도교로 바꾸었다. 이 명칭에는 '세상을 구제할 바른 도리'(正道)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면에는 정씨 진인의 상징을 취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다. 정도교에서는 발음의 유사성에 기대어 정(鄭)도령을 정(正)도령으로 해석했던 것이다. 이것은 정씨 진인이 가진 힘을 빌려 교단의 정당성과 권위를 확보하려는 의도였다.[128] 유사한 양상은 또 다른 기독교계 신흥종교인 세계일가공회의 창시자 양도천 목사의 일화에서도 나타난다. 양도천은 자신이 곧 정도령임을 깨닫고 계룡산에서 신흥종교를 일으켰다고 전해진다. 구체적인 정감록 비결이 언급되고 있는데, "진사성인출 남해신인출"(辰巳聖人出 南海神人出)이 1953년 남해 도덕도에서 기도하던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129] 이후 1964년 계룡산에 입산하여 기도하던 중 신도안이 새 예루살렘의 근거지임을 깨달아 터전으로 삼았다.

위의 두 사례는 새로운 시대의 중심지로서 계룡산이 갖고 있던 상징적인 힘은 조선시대를 거쳐 20세기 초반과 중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생명력은 1900년대 후반에도 포착되고 있는데, 신도안 종교촌 해체 이후에 신도안으로 돌아온 신흥종교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긴 경우에도 정감록신앙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도령의 설법을 교리에 인요한 대구의 정일회, 정도령을 기독교의 바른 정신의 출현으로 해석한 용문산기도원 등의 사례가 이러한 경향을 증명해 주고 있다.[130] 계룡산을 물리적인 근거지로 삼지 않더라도, 공간이 포함하는 정씨 진인과 예언에 대한 믿음이 신종교 형성의 보편적인 기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도안 종교촌의 형성 배경뿐 아니라, 교리적 측면에서도 조선시대 정감록 사건의 모티프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신종교 교주나 창시자가 차기 왕씨로 대표되는 정씨와 스스로를 동일시했기 때문이다. 탁명환은 신격화된 교주에 대한 숭배를 신종교의 특징이라고 지적한

128) 탁명환, 『서울 계룡산』, 59.
129) 탁명환, 『서울 계룡산』, 90.
130) 탁명환, 『서울 계룡산』, 59.

다.[131] 기성종교의 형이상학적인 신 개념과 달리, 신종교의 교주는 살아있는 활불(活佛)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메시아니즘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정감록의 진인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감록의 영향을 받은 변란 사건과 신종교는 정씨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자신들의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다. 다만 조선시대에는 복권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 귀족이나 부조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평민 계층 등 정치 조직의 성격이 강했다면,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에는 종교 조직에서 주로 드러난다는 차이가 있다.

계룡산의 정치적 권력이 신종교의 종교적 중심지와 병용되는 원인 역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계룡산을 세속적인 신왕토로 중시해 왔던 조선시대 역모 세력들과 달리, 각 신종교는 계룡산을 종교적 유토피아로 삼고 있다. 국가 부재라는 초유의 상황과 해방 이후의 혼란은 말세적인 종말론의 대두를 불러일으켰다. 정감록 예언에 의존한 사람들은 계룡산을 현주소가 있는 지상천국으로 삼은 것으로,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공간으로 설정되었다.[132] 이처럼 20세기 계룡산에 투영된 권력은 세속적인 정치적 힘과 성스러운 종교적 힘이 더욱 복잡하게 혼합된 형태로 변화한다. 신도안 종교촌의 형성은 계룡산의 상징적인 권력에 감응하는 동시에, 공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유사한 목적의식의 발현으로 볼 수 있는 이유이다.

1969년 8월 15일 계룡산 신도안에 세계종교연합법황청이 창건된 것 역시 이들이 공유하는 공간의 상징을 확인하게 해 준다. 세계인의 평화와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모든 사람을 법황청의 속민으로 삼겠다는 목적으로 발족한 것이다. 신도안 법황청이 주는 기시감은 영조 대의 이빈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 정감록을 따라 찾아 나섰던 철옹성처럼 계룡산 신도안을 별도의 자치 형태로 운영하고자 한 것이다. 이빈 사건의 계기가 되었던 정감록이 200여 년이 지난 뒤에 법황청이라는 제2의 철옹성을 탄생시킨 것이다. 국가 통제를 벗어난 자치 조직이 가진 반체제적인 위험성 역시 조선시대와 유사

131) 탁명환, 『서울 계룡산』, 15-33.
132) 탁명환, 『서울 계룡산』, 56-89.

한 권력 투쟁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다음에서 확인할 것이다.

2. 시천교의 유입과 종교촌 해체로 본 권력 투쟁의 여운

1) 시천교의 신도안 입성: 권력지향적인 중심지 전략

종교촌 형성의 배경에 정감록의 전승과 계룡산이 가진 힘이 있었다는 것은 김연국과 시천교의 유입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시천교가 계룡산 신도안으로 본부를 옮긴 사건은 종교촌 형성의 분수령과 같은 것이었다. 첫 번째 이유는 조직적인 교단이었기에 이주의 규모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 당시 황해도와 평안도 등지에서 신도 2,500여 명이 김연국을 따라 계룡으로 모여들었다. 그전에 이미 지상천국의 도래를 꿈꾸며 신도안으로 거취를 옮기던 종교집단과 일반 민중들이 있었다는 것을 앞에서 확인했었다. 그러나 조선 말 계룡산을 불온세력의 온상으로 규정했던 사회 분이기로 인해 시천교 정도의 대규모 이동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무속 계열이 주를 이루어 여기저기에 분산되어 있는 형태였다.

두 번째 이유로는 시천교가 동학이라는 민족종교에 뿌리를 둔 교단이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시천교 유입 이전에 신도안은 '미신취락'이라고 폄하되었다. 당시에는 군소집합에 불과했을 뿐 아니라, 일본에 반감을 가진 집단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왜곡된 평가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천교의 신도안 이주는 계룡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고 다른 교단의 응집을 고무시켰다. 동학이라는 민족종교의 뿌리와 동학의 2대 교조 최시형의 3대 제자 중 한 명이라는 김연국의 지위가 시천교에 특별한 권위를 부여했던 것이다. 다른 신종교집단은 시천교와 같은 중심지를 공유함으로써 민족종교의 권위와 정통성에 의탁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동학의 제2대 교주 해월(海月) 최시형으로부터 구암(龜菴)이라는 도호(道號)를 하사 받은 김연국은 의암(義菴) 손병희, 송암(松菴) 손천민과 더불어 삼암(三菴)으로 꼽혔다. 1894년 11월 동학운동 2차 봉기에서 대도소장으로 기병했다. 공주 우금치전투에서 패배하고 최시형과 함께 피신했다. 1901년

체포된 김연국은 1904년 12월까지 경성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게 된다. 일본으로 망명했던 손병희가 돌아와 천도교를 창건했고, 1907년 8월 김연국이 대도주(大道主) 자리를 물려받게 된다. 그러나 손병희계의 문명파와 갈등을 빚으면서 3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고 결국 1908년 천도교를 탈퇴했다. 이후 김연국은 이용구가 조직한 시천교로 들어가 최고지도자인 대예사(大禮師) 자리를 지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용구 사후, 종례사였던 송병준과의 의견 차이로 1913년 3월에 독자적인 시천교총부를 설립하게 되었다.

동학 교단의 내분을 겪고 독립하면서 김연국은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세우고 시천교총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동학 내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징적인 권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김연국은 계룡산에서 해답을 찾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전을 추진하였고 대본원과 본교당을 차례로 설립하여 1924년 자신의 생일에 대본원 낙성식과 함께 신도안에 이주했다. 이듬해 시천교에서 상제교로 개명하면서 서울에 있던 본부를 계룡산 상제봉 아래로 옮겼다.

조선총독부의 감시와 동학 교단 내의 갈등이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서울에서 신도안까지 이동하는 일은 시천교의 운명을 건 결단이었다. 여기에는 사람과 물자의 이동에 드는 경제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 없었다. 서울에 비해서 입지가 좋지 않은 계룡산에서 교단을 부흥시키는 일은 무모한 결정에 가까웠다. 그러나 김연국을 따라 계룡산에 입주한 시천교도가 2,500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재산을 정리하고 고향을 떠나 연고도 없는 계룡산으로 무작정 들어왔다. 교단의 존속을 걸고 김연국이 새로운 터전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그의 결단이 시천교도를 감응시킬 수 있었던 원인을 찾는 일은 분명 중요한 연구 주제로 보인다. 본 논문은 계룡산에 누적된 힘과 예언에 대한 기대감이 이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근거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단 혹은 교인들의 '생존'이 중요한 상황에서 십승지나 피장처 같은 공간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앞서 정리한 정감록의 공간론을 상기했을 때, 권력에서 동떨어진 주체들에게는 혼란스러운 정국을 피할 수 있는 은신처를 찾아가는 것이 이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김연국과 초기 이주민 2,500여 명이 계룡산을 선택했다는 것은 신왕토가 가진 권력지향적인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들은 당시의 정국과 교단 내의 상황에서 소극적인 도피보다, 적극적인 힘의 쟁탈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연국이 얻고자 한 권력의 성격은 조선시대 반란 세력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김연국의 증손인 명기(明起)의 증언에 따르면, 김연국이 신도안으로 이주한 것은 정교분리를 목표로 한 선택이었다. 김연국이 손병희, 이용구와 뜻을 달리 한 이유는 종교지향적인 신념 때문이라는 것이다.

> 의암 선생이 1905년에 일본망명을 마치고 오셔서 동학을 세계만방에 떨치려면 교명을 천도교로 해서 포교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구암 할아버지하고 두 분이서 천도교를 설립했어요. 맨 처음에 내가 듣기에는 의암 선생님 말씀이 도덕은 구암 선생님이, 행정은 내가 두드러지니 둘이 힘을 합쳐서 발전을 시켜보자 해서 시작했는데, 의암 선생이 자꾸 딴짓을 하니까 갈라지게 된 거여. 그래서 시천교에서 모셔갔어요. 거기에서는 이용구, 송병준이 일진회 만들어서 난봉을 하니까 시끄럽고, 또 일본이 정치를 하니까 수도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1924년에 신도안으로 내려가 상제교로 하셨다가, 해방 이후에는 천진교로 바꾸었는데 지금은 동학 대종원이라는 명칭을 많이 쓰지요. 나중에 신도안(계룡산)에 내려오신 이유는 다른 분들하고 틀려 가지고 종교하고 정치를 분리시켜야 된다고 더구나 그 때는 일정시대에 일본놈들 밑에서 제대로 수련도 못하고 하니까 신도안으로 가셔서 도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던 거예요.[133]
>
> (밑줄은 필자의 강조)

동학 교단의 정치적 개입에서 벗어나 도인을 양성하고자 했던 김연국은

133) 역사문제연구소 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엮음, 『전봉준과 그의 동지들』(경기: 역사비평사, 2017), 23.

서울로부터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방법으로 이주를 선택한 것이다. 그에게 신도안은 정치적 권력과 괴리된 곳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김연국은 신도안을 어떤 힘의 전략으로 사용하고자 했는지 의문이 든다. 여기에서 김연국이 동학운동의 실패와 교단의 분화로 위기에 놓인 동학의 중흥을 꿈꿨다는 사실을 재차 상기할 필요가 있다.[134] 교단과 교주의 권위를 정립하기 위해 계룡산의 힘에 의탁한 것은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정치적 의도라기보다, 시천교로부터 동학을 재건하여 교리적 이상을 달성하려는 종교적 의도가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정교분리와 도인양성의 목적은 세속적인 권력에서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었지만, 미래의 지상천국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종교적인 정치력을 지향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현실의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안에서 종교왕국을 건설하는 데 계룡산의 내력을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구암의 권력지향성은 다른 동학계 교단인 증산교와의 비교를 통해 부각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공간 전략이 교단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시천교와 증산교의 지리적 차이를 중심지에서 얻고자 하는 이상향의 차이로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 성지인 계룡산과 모악산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염원이 담긴 공간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각 공간이 상상하는 미래의 이상세계는 사뭇 달랐다. 강일순이 창시한 증산교는 후천개벽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동학의 1대 교주 최수운은 후천개벽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동학혁명의 사상으로 활용했다. 이때 '개벽'은 선천시대의 종식이자 후천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 후천시대는 차별과 억압 등 갈등이 지배해 온 낡은 시대 이후에 열릴 자유와 평등의 시대이다. 동학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약화된 후천개벽사상은 강일순에 의해 부활했다. 강일순은 모악산을 후천개벽의 배경으로 여기고 증산교 중심지로 삼았다. 모악산이 후천개벽사상을 표방하고 있다면, 계룡산은 정감록의 왕조교체사상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전자에 비해서 후자의 사상은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측면이 강하

134) 이길구,『계룡산맥은 있다』(대전: 누리문화사. 2001), 161.

다. 후천개벽사사상은 “모든 생명이 상생하는 조화로운 개벽의 선경”[135]을 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상생 외에 갈등,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다. 낡은 시대를 만든 세속적인 욕망과 권력 투쟁이 모두 소멸된 세계를 지향한다. 반면에 왕조교체사상은 현제 통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세속적 욕망이 강하게 드러난다. 정감록이 촉발한 역사적 권력 투쟁이 계룡산에 왕조교체사상을 투영한 결과였다.

이러한 사상적 차이는 계룡산과 모악산이라는 공간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어떤 공간을 지향하느냐를 통해서 사상의 성격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천교와 증산교가 보여주는 공간 전략은 각각의 사상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중심지를 구성하는 종교집단의 다양성을 비교하는 작업으로도 이어진다. 공간 전략과 사상, 종교 구성을 비교하면 [표 7]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7] 시천교와 증산교의 사상과 중심지 풍경의 비교

교단	중심지	사상	사상의 성격	종교집단의 구성
시천교	계룡산	왕조교체사상	권력지향적	시천교를 비롯한 불교계, 무속계, 기독교계 등
증산교	모악산	후천개벽사상	상생지향적	증산신앙이 주류

증산교의 후천개벽사상에는 동학운동의 잔영이 짙게 남아있다. 동학운동이 이루지 못한 만민 평등의 조화로운 후천 사회에 대한 이상이 모악산에 반영되어 있다. 반면 계룡산은 정감록의 왕조교체사상이 역사적으로 시도되

135) 김성환, 「전북 모악산은 어떻게 '성스러운 어머니 산'이 되는가?」, 『도교문화연구』 25 (2006): 29.

었던 곳이다. 당대의 중앙 권력과 대립하고 투쟁했던 세력들이 열망하던 공간이다. 증산교와 대비되는 시천교의 공간 전략은 구암의 권력지향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혼란스러운 정국을 타개하고자 했던 민심은 계룡산이 가진 왕조교체사상에 더욱 공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신도안에 종교촌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교리적 차이를 뛰어넘어 왕조교체의 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모악산과 달리 계룡산에 다양한 종파가 공존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들은 계룡산에서 정감록의 예언을 실현하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다.[136] 2,500명의 시천교도와 100여 개의 종파는 왕조교체사상에 결의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공간을 선택한 것이다. 신도안 종교촌은 현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종교적 열망이 집약되면서 복합적인 힘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2) 반복되는 역사: 중앙 권력과의 경쟁

신도안 종교촌의 형성으로 활성화된 권력지향적인 움직임은 중앙 정부의 이목을 끌게 되면서 투쟁의 역사를 써내려 갔다. 종교촌은 1983년 6·20사업으로 해체되기까지 중앙 정부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1900년대 신도안 종교촌에 집합한 신종교의 수는 매년 증가했다. 세력의 몸집이 커지자 중앙 정부는 이들의 조직적인 반란을 우려하게 되었다. 공식적인 해체 전까지 100여 개 종파의 터전이었던 계룡산은 중앙 권력의 감시와 탄압을 겪었다. 여기에서는 신도안 종교촌의 형성을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투쟁의 연장선으로 보며, 정부와의 힘겨루기가 유사한 형태로 발생했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이러한 투쟁은 종교촌 형성기인 일제강점기에서부터 시작한다. 조선총독부는 신도안에 집결하는 종교집단을 해산시키려고 했다. 식민통치의 기세를 확보하는 데 방해가 되는 한국의 신흥민족종교들을 미신, 사교, 사이비종교, 유사종교 등으로 왜곡하고 매도하고 단속했다.[137] 앞서 언급한 어용학자를

136) 이길구,『계룡산』(대전: 대문사, 1996), 114-115.
137) 윤이흠,『일제의 한국 민족종교 말살책: 그 정책의 실상과 자료』(서울: 모시는사

동원해 신종교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했다. 계룡산을 미신, 유사종교, 종교유사단체 등의 소굴이라고 폄하하는 작업이었다. 예를 들어, 이각종은 조선총독부가 발행하는 잡지인 '조선'(朝鮮, THE CHOSEN)에 실린 "조선의 미신과 계룡산"이라는 논고에서 "조선에는 종교유사단체 형태의 미신이 만연해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138] 대표적인 재조일본인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가 저술한 『조선의 취락: 전편』의 어조도 이와 유사하다. 계룡산 신도내의 취락을 조사하여 이곳을 미신취락으로 폄하하고 있다.[139] 마찬가지로 무라야마 지쥰 역시 『조선의 유사종교』에서 조선의 신흥종교를 유사종교로 규정하였다. 계룡산 등지에서 성도건설운동을 전개했던 집단에 대해서 유사종교의 종교사상인 지상천국관념 및 구세주관념의 구체적 표현으로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고 왜곡했다.[140] 이들 어용학자들은 모두 조선총독부의 촉탁을 받아 근무한 자들이었기에 저작의 어조가 중앙 권력의 의도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무속과 신흥종교에 국한하지 않고 민족종교인 천도교, 보천교, 대종교 등에 대해서도 왜곡작업을 이어갔다. 이것은 민족종교가 독립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경계한 처사였다. 민족의 염원이 집결하는 계룡산은 주요 공격 대상이었다.

앞서 다루었던 동아일보의 '계룡산기' 역시 바로 '신도안 종교촌 미신론'을 생산하는 매체였다. 표면적으로는 기행문의 형식을 취하지만, 시천교를 비롯해 계룡산에서 정씨 진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헛된 희망을 좇는 무리로 비난하는 어조가 곳곳에 녹아있다. 계룡산기(1)에서 "정도령은 잇는가 업는가" 하는 구절은 당시 민심에 동조적인 것보다 비꼬는 뉘앙스가 강하다. 계룡산기의 후반부는 계룡산과 정감록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람들, 2007), 15-26.

138) 李覺鍾, 「朝鮮の迷信と鷄龍山」, 『朝鮮』, 8 (1924): 116-137. 여기에서 '미신'으로 규명한 종교유사단체의 목록은 금파시천교신 도내지부, 정토종신도내포교소(淨土宗新都內布教所), 제 칠일 안식일야소재림교(第七日安息日耶蘇再臨教) 등 6개이다.

139) 善生永助, 『朝鮮の聚落: 前篇』(京城: 朝鮮總督府, 1933), 251-257.

140) 村山智順, 『(調査資料 第42輯) 朝鮮の類似宗教』 (京城: 朝鮮總督府, 1935), 934-950.

있는데, 신도안의 거주민을 묘사하는 구절에서 기사의 본래 의도가 드러난다.

> 정도령이 과연 계룡산 속에 있는지 없는지는 들어가 보아야 알 일이어니와, 길가에 서리맞은 풀 포기와, 얼굴을 때리고 옷소매를 때리는 낙엽이며, 소리도 들릴락말락 구비 돌아 흘러내리는 맑은 시내며 천만 년 동안에 님을 기다리기에 피곤한 듯한 늙은 바위며, 안개 속에 얼굴을 감추었다 드러냈다 하는 산들도 모두 무슨 말할 수 없는 깊은 수심과 영원히 달할 수 없는 무슨 희망을 기다리기에 지친 듯하다.[141]

> 『鷄龍石白草浦行舟世事可知』계룡산 바윗돌이 희어지고 풋개에 배가 다니게 되면 세상 일이야 말할 것 있나. 정도령이 나온단 말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초포행주가 어떻게 되나 계룡산 검은 바위가 어떻게 희어지나. 다 때만 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다...(중략)...정도령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여러 백 년 동안 눈이 뚫어지도록 요놈의 고개를 바라보았으나 아침마다 자고 나서는 바라보아도 고개는 움쭉도 아니하고 있었다.[142]

> 그러나 방안에서는 계집앤지 사낸지도 구별할 수 없는 어린 목소리로 "……일원 대장이 청룡도를 빗겨 들고……"하는 소리가 들릴 뿐이오 그밖에는 바싹 소리도 아니 난다. 아마 정도령을 기다리기에 지친 백성들이 기나긴 겨울 밤을 이야기책으로 잊으려는 것인가 보다. 그네에게는 청룡도를 빗기 들고 외치는 일원 대장이 정도령이나 아닌가 할는지도 모른다.[143]

계룡산기는 특히 시천교도의 비참한 생활을 조망하며, '미신'에 현혹된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144]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을 기다리다가 가산을 탕진

141) 계룡산기(1).
142) 계룡산기(20).
143) 계룡산기(22).
144) 계룡산기(23)-(27), (32)-(33).

하고 생활고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룡산을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비웃고 있다. 그밖에도 정감록 예언과 관련된 동네와 삼신당(三神堂)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145] 어렵게 먹고사는 교인들의 삶과 대조되는 교주의 부유한 생활과 장삿속이 보이는 교리를 꼬집으며 신도안 내 종교생활을 전반적으로 비난하고 있다.[146]

> 미신에 속아 사는 피등(彼等)의 비참한 정경(情景)!
> 우민을 빨아먹는 독사의 종류
> 얼마나 징벌하였으면 좋을까
> (중략) 미신의 힘 ! 실로 미신의 힘처럼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 또 있을까. 이 순실한 백성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윤락의 깊은 구렁에 빠지게 한 미신을 얼마나 미워하면 족하며 얼마나 저주하면 족할까. 이 미신의 힘을 이용하여 가련한 동포들의 피를 빨아 먹기로 업을 삼는 수많은 독사의 종류들을 얼마나 미워하면 족할까. 얼마냐 때려주고 물어주고 찢어주면 족할까.[147]

> 미신을 상속한 술객의 자식
> 어리석고도 아는 체하는 상투쟁이의 우스운 예언
> (중략) 아마 무슨 술객인 그의 아버지가 피난 차로 정도령을 기다리러 이곳에 들어왔다가 자기는 늙어 죽어 버리고, 정도령 기다리는 일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간 것인가 보다.[148]

계룡산과 정감록에 대한 민중의 공감을 미신으로 격하하는 전략은 정조

145) 계룡산기의 기사는 계룡산 제자봉 근처의 '우적동(禹跳洞)'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호떡 냄새나는 지명, 왜떡 냄새나는 지명에 모두 구역이 나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계룡산기(29).) 우적동이라는 명칭은 정씨 진인을 돕는 인재 중에 우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내용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조동길, 「1920년대의 계룡산(3)」, 『웅진문화』 15 (2002): 178.) 또한 삼신당의 조잡함을 지적하며 "귀신 비빔밥 같은 삼신당의 정체"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했다. (계룡산기(30).)
146) 계룡산기(32).
147) 계룡산기(23).
148) 계룡산기(27).

대의 대응책과 유사하다. 유학을 제외한 사상을 이단, 사단, 좌도로 규정했던 정조와 마찬가지로 신도안 종파들을 모두 미신으로 분류하여 적대시하고 있다. 정학을 도와 사학을 예방하고자 했던 18세기말 '부정학(扶正學)'의 목적과 상통하는 것이다. 정학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을 비난하고, 올바른 사회를 저해하는 무리로 단속했다.

특히 일제강점기의 사회정화운동은 미신을 믿는 세력들을 일종의 '개화가 필요한 무리'로 여겼는데, 교화주의에 입각한 정조 대의 대응책과 일면을 공유하고 있는 모습이다. 계룡산기를 소개하고 현대어로 정리한 조동길은 계룡산 취재의 의도를 "당시 세상에 은밀하게 떠돌던 새 세상에 대한 소문의 진원지, 종교라는 이름으로 온갖 못된 짓을 일삼는 무리들과 그들에게 속아 삶이 파탄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149]으로서의 계룡산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었다고 추측한다. 그러면서 계룡산기의 연재 목적을 민중계도라는 언론의 사명과 연관시키고 있다. 당시 언론사의 출판물은 모두 조선총독부의 검열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계룡산기와 같은 연재물이 미신타파를 통해 사회를 교화하고자 한 조선총독부의 기조와도 일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계룡산기(35)에는 예언에 매몰된 몽매한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넌지시 제안하고 있다.

> 희망 많은 소년! 당신이 정도령
> 공부만 잘 하는 소년은
> 누구든지 정도령이다
> (중략) "정도령이 누군지 가르쳐드려요?" 한즉 "네." 하고 소년도 인제는 퍽 친하여졌다. "당신이 정도령이오. 당신이 공부를 잘 해서 큰 일을 많이 해서 저 불쌍한 사람들을 잘 살게 하면 당신이 정도령이오. 정말 그렇소."[150]

149) 조동길, 「1920년대의 계룡산(4)」, 『웅진문화』 17 (2004), 49.
150) 계룡산기(35).

민족주의와 결부되었던 계룡산과 조선총독부의 힘겨루기는 역설적이게도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와의 투쟁으로 번졌다. 학술보고서와 언론기사를 통해 사회정화사업을 추진한 조선총독부와 달리, 해방 이후의 권력 투쟁은 직접적으로 공간을 해체하려는 시도로 촉발되었다. 한국전쟁이라는 전란과 민족 분열을 경험하면서 민족주의적 염원은 계룡산 신도안 종교촌의 전성기를 가져왔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70년대 이미 100여 개에 가까운 종파가 신도안을 구성하고 있었다.

종파의 수가 늘어나자 정부는 자연보호를 명목으로 신도안의 신흥종교집단 건물을 철거하려 했다. 1975년 정부 주도의 정화사업이 시작되었는데, 미신타파를 구호로 내세운[151] 1차 정화사업으로 41개의 단체가 사라졌다.[152] 이를 거부했던 교주와 주요 관계자 53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에 충남도경이 나서서 정화사업을 주관하기도 했다. 1976년, 신도안 종교촌을 '신흥종교집단지역'으로 지칭하며, "무속행위자를 귀가시켜 교주와의 접촉을 막는 것"을 사업의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신도안으로 들어오는 외래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153]

중앙정부의 2차 정화사업은 1979년에 보다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다. 정화사업이 단번에 마무리되지 않은 이유는 계룡산의 구심력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다. 1차 정화사업에서 쫓겨났던 신흥종교들이 2년도 안 되어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다. 2차 정화사업으로 계룡산에서 철거된 건물은 470여 개에

151) 미신타파라는 구호는 자연정화사업 행사의 간판에 쓰인 문구에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관련된 이미지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최원회, 이근화, 「계룡산 신도안 종교촌의 변천 및 종교구성 연구」, 248.

152) 41개의 단체 목록은 다음과 같다. 정도교대본영원(正道敎大本營院), 반용사(半龍寺), 황적암(黃跡庵), 청룡암(靑龍庵), 등용대(登龍臺), 쌍용암 (雙龍庵), 통천암(通天庵), 삼선암(三仙庵), 광명암(光明庵), 천일사(天一寺), 내봉암(來鳳庵), 청사관음백(廳舍관음백), 태극암(太極庵), 성도사(聖都寺), 법룡사(法龍 寺), 신흥암(新興庵), 청룡암(靑龍庵), 실덕암(實德庵), 미륵불교청화법당(彌勒佛敎청화법당), 청룡사(靑龍寺), 월정사(月精寺), 숫용암, 용추사, 계명사(鷄鳴寺), 삼성암(三星庵), 용추암, 자성암(自性庵), 석굴암(石掘庵), 대천사(大天寺), 떡보살(떡보살), 삼안석사(三安石寺), 산 신암(山神庵), 봉원사(奉願寺), 백룡암(百龍庵), 선경사 (仙京寺), 천태사(天台寺), 정추사, 용문암(龍門庵), 도덕암(道德庵), 안식문(安息門), 태극사(太極寺).

153) 「신도안 出入통제 忠南道警, 巫俗행위 등 막게」, 『경향신문』, 1976.3.12.

이르렀다. 대신 1차 정화사업에서의 강제철거와 달리 교주와 신도들에게 자진철거를 종용해 반발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정부에서는 융자지원과 신도안 근처 부지 확보라는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꾸준히 미신취락이라는 오명과 정화사업으로 공격받던 신도안 종교촌은 1983년 6·20사업으로 끝내 폐쇄되었다. 신도안으로의 인구 전입이 금지되었고 철거와 이주 사업이 추진되었다. 공식명칭은 '6·20재개발사업'으로, 1983년 6월 1일부터 1984년 6월 30일까지 5개 리(엄사리, 정장리, 부남리, 석계리, 용동리)에 있는 건물 및 주민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다. 여기에 육군본부인 계룡대를 설치한다는 취지 아래 주민들의 개인재산을 매입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신도안에는 3군통합사령부인 계룡대(鷄龍臺)가 들어섰다. 1989년에 육군본부와 공군본부가 이전해 왔고, 1993년에 해군본부가 이전해 왔다.

대한민국 정부의 정화사업은 과거의 부정학 대응과 명확한 차이가 있다. 사상의 정화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중심지에 대한 물리적인 공격이 가해졌던 것이다. 이는 계룡산을 점유함으로써 그곳에 누적된 반왕조적인 권력을 해소하려 했던 흥선대원군 등 조선말의 대응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신도안 입주를 금지하고 계룡산을 정부 소유로 삼으려는 모습은 시간적 격차를 뛰어넘어 반복되는 투쟁의 역사를 보여준다. 누구든지 계룡산을 선점하면 잠재적인 권력을 얻게 된다는 원리가 20세기까지 유의미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례 없는 현대적 정화사업으로 철거와 이주가 이루어지면서 계룡산은 구심점으로서의 권위를 잃은 것처럼 보였다. 더구나 천진교를 비롯해 교주들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 빗나가면서 신도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무려 세 차례의 정화사업이 이루어질 정도로 계룡산이 가진 구심력은 건재했다. 건물을 철거하고 강제 이주시킴에도 신도안 거주민들의 태도는 일관적이었다. 이들은 계룡산을 떠나면 죽는다며 정화사업에 맞섰다.[154] 애초에 계룡산을 선택한 동기는 목숨을 부지하고 보신하는 것과 거

154) 이길구, 『계룡산: 신도안·돌로서 금정을 덮었는데』 (대전: 대문사, 1997),

리가 멀었다. 그래서 정화사업이 시행되고 얼마 되지 않아 신도안으로 되돌아오는 무리가 생겨났다. 신도안을 떠나더라도 계룡산의 주봉이 보이는 곳에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심지어 6·20사업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성은 계속되었다는 점은 공간에 누적된 힘이 얼마나 거대한 것이었는지 알려준다. 신도안 종교촌을 폐쇄하면서 51개의 신흥종교집단이 타지로 이전했는데, 이들 중 20개, 즉 39.2%가 계룡산에 인접한 대전을 새로운 터로 삼았다.[155] 이들은 계룡산에 물리적으로 근접하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계룡산에 누적된 권력에 기대어 생명력을 유지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간 모티프를 취함으로써 힘을 쟁취할 수 있다고 믿는 기대는 기축옥사 이후 정착된 계룡산의 상징성이 시대의 흐름에도 여전히 유효했다는 고찰을 남기고 있다.

123-124.

155)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계룡소고」(3판), 1992, 153-158.,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신도고사」(재판), 1993, 65-68.

Ⅵ. 결론

지금까지 계룡산의 성지화 과정을 공간 연구에서 주목한 권력 투쟁과 역동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저작 연대와 예언 실현과 같이 시간에 치중해 있던 정감록 연구에서 공간의 논의 필요성을 재고하고자 했다. 문헌으로 정착하기까지 정감록은 특정 주제를 공유하는 조선시대 도참비기 중에서 대표적인 권위를 얻게 되었다. 이씨가 망하고 정씨 진인이 출현할 것이라는 예언의 서사에서 계룡산은 새로운 왕조의 도읍지이자 정감록 실현을 함축하고 있는 공간으로 전승되었다. 왕조교체의 모티프로서 계룡산은 조선시대부터 해방 이후까지 공간을 물리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대망하던 주체들에 의해 동원되었다. 본 논문은 계룡산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사회적 역동의 생산자이자 결과로서 공간에 주목하여 성지의 형성을 설명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Ⅱ장에서는 20세기 전개된 공간 연구를 개괄하고 정감록의 공간을 유형화하여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공간을 다루는 종교학과 사회과학에서의 접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성스러움 개념을 중심으로 종교 현상과 공간의 관계를 밝힌 종교학과 사회적인 공간 생산을 강조했던 공간적 전회의 관점은 두 가지 공통된 논의로 정리되었다. 첫째, 공간은 비균질적이라는 것이다. 종교학에서는 범속한 공간과 성스러운 공간 사이에 층위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시간과 마찬가지로 공간에도 역동성을 부여하려 했던 사회과학의 논의와 일면을 공유하고 있다. 둘째, 공간을 구분하는 어떠한 권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공간의 성별은 성스러움이라는 힘이나 정치적 권력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간의 역학을 염두에 두면서, 정감록의 공간을 유형화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계룡산으로 대표되는 신왕토 형, 말년의 화를 피하는 십승지 형과 피장처 형, 변란의 장소로서 흉지 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성격을 비교하였다. 네 유형은 길함과 부정함, 국운과 민생 등의 기준에서 대조적이나, 왕조교체라

는 예언의 서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각 공간의 역할과 기능이 체제전복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력을 둘러싼 역동적인 공간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 작업을 바탕으로 Ⅲ장은 계룡산에 힘을 누적시키고 성지로 만든 역사적 투쟁을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조선시대 정감록 사건으로 불리는 물리적 투쟁 속에서 공간 모티프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확인했다. 정감록 사건의 전형으로 볼 수 있는 정여립 모반 사건에서 나타나는 계룡과 정씨라는 두 모티프가 반복되고 변용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유효립의 난과 정한 사건에서 공간과 왕씨를 내세운 전략이 답습되었고, 계룡을 전제하면서 진인 찾기에 주목했던 17세기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동시에 설화를 기반으로 민중의 기억을 지배했던 서사적 투쟁을 다루었다. 태조와 흥선대원군의 신도 건설 중단의 이유를 정감록 예언으로 설명하는 설화가 현대까지 전해지면서 계룡에 대한 신비화가 가속될 수 있었다. 또한 조선 왕실의 정감록 대응이 변모하는 과정을 통해 중앙의 공격 대상이 공간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했다. 정조 대의 교화주의와 대조되는 조선말의 계룡산 입산 금지와 천도 시도는 공간이 가진 반왕조적 상징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Ⅳ에서는 조선이 멸망하면서 예언을 경험적으로 실증한 민중들이 계룡산에 이주함으로써 얻고자 한 권력의 모습을 종교촌 형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정감록은 일제강점기와 해방에 대한 염원에 적용되었고, 민족적 차원으로 확대된 계룡에 대한 기대감이 집단 이주의 계기가 되었다. 신종교가 계룡산을 터전으로 삼았던 배경에는 정감록신앙의 영향이 컸다. 대부분의 경우 교주와 정씨를 동일시하고 있으며, 정씨의 땅인 계룡에 대한 인지가 작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예언에 의탁하여 교단의 정통성과 교주로서의 권위를 확보하려는 권력지향적인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동학 교단 내의 분열 상황에서 김연국은 계룡산에 터를 잡아 시천교를 중심으로 동학의 중흥을 꿈꾸었다. 다만 세속적인 권력 찬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지상천국을 대비하는 종교적인 권력을 얻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

다. 여기에서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이 혼합된 공간의 의미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 모악산을 중심으로 삼은 증산교와 시천교를 비교하여 지리적 위치에 반영된 사상적 차이를 유추해 보았다. 강일순의 증산교는 후천개벽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 시천교는 계룡산이 상징하는 왕조교체사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각 중심지를 구성하는 종파의 수를 결정하는 요인이기도 했다. 증산계가 지향하는 후천개벽사상과 딜리, 조선시대부터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온 왕조교체사상은 계룡산에 다양한 종파의 공존이 가능하게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계룡의 독특한 잠재성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의 중앙과의 경쟁을 촉발했다. 조선총독부는 민족운동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종교촌을 미신취락으로 폄하하는 사상적 공격을 펼쳤다. 이것은 교화주의와 부정학으로 대응했던 정조 대의 모습과 유사한데, 해방 이후에는 수차례의 사회정화사업이 시행되면서 공간에 대한 물리적 대응이 주를 이루면서 조선말의 상황과 유사점을 발견했다. 6·20사업으로 종교촌이 해체된 이후에도 계룡산과 물리적 근접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신종교집단의 모습을 통해 공간이 가진 강력한 구심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충분하게 다뤄지지 않은 정감록의 공간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통해 정감록 연구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명과 상황에 따른 공간의 기능을 상세하게 다루는 정감록의 공간 중심성을 확인했다. 예언의 핵심 요소들과 연관된 공간을 유형화하여 정리함으로써 공간 연구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었다. 실제로 공간에서 예언을 실현하려 했던 다양한 주체가 가진 동기와 목적을 밝혀 공간에 반영된 사회적 관계를 읽음으로써 공간의 역동성을 증명할 수 있었다. 정감록을 신봉한 사람들은 미래의 시간을 기다리기보다, 공간과 관련된 예언을 실현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을 보였다. 본 논문의 작업이 정감록의 대두와 민심의 정치적, 종교적 상상력을 이해하는 틀로 계룡산을 조명함으로써 정감록을 비롯한 한국종교에 새로운 주제를 제안하고 예언·비결 문헌 연구의 확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성스러운 공간을 다루는 종교학의 새로운 연구 대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공간과 권력의 문제로 종교학과 사회과학의 접점을 도출함으로써 성지를 분석하는 관점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종교적 성스러움과 정치적인 권력 사이의 상호작용을 발견함으로써 성지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었다. 전통종교에 속한 성지뿐 아니라, 비종교적이거나 세속적으로 여겨졌던 공간을 종교학의 연구 주제로 포섭하는 작업이었다. 마지막으로 정감록 관련 연구 주제를 종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대, 사건, 인물 등 개별적으로 다뤄졌던 연구를 계룡산을 중심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다. 조선시대부터 근현대로 이어지는 민간의 정치적 염원과 종교적 신념을 계룡산에 중층적으로 누적된 권력 투쟁의 측면에서 재정리했다. 선행 연구 간의 연결고리의 가능성을 제시하여 정감록을 새로운 관점에서 복합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참 고 문 헌

『비결집록(秘訣輯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자료(奎7568)

『선조수정실록』

『승정원일기』

『연려실기술』

『영조실록』

『일성록』

『태조실록』

「계룡산기」

김성환.「전북 모악산은 어떻게 '성스러운 어머니 산'이 되는가?」.『도교문화연구』 25 (2006): 9-42.

김수산·이동민 편.『鄭鑑錄』. 서울: 명문당, 1968.

김신회.「'정감록' 기억의 형성과 예언서 출현」.『한국문화』84 (2018): 215-253.

김우철.「조선 후기 변란에서의 정씨(鄭氏) 진인(眞人) 수용 과정」.『조선시대사학보』60 (2012): 71-104.

김탁.「정감록 출현의 역사적 과정과 의의」.『충청문화연구』20 (2018): 5-42.

_____.『조선의 예언사상』上, 下. 파주: 북코리아, 2016.

고성훈.「조선 후기 '해도기병설(海島起兵說)' 관련 변란의 추이와 성격」.『조선시대사학보』3 (1997): 129-162.

_____.「조선 후기 민중사상과 鄭鑑錄의 기능」.『역사민속학』47 (2015): 113-146.

되링, 외르크(Jörg Döring), 틸만, 트리스탄(Tristan Thielmann).「서문: 우리는 공간에서 무엇을 읽는가?」.『공간적 전회』, 7-54. 서울: 심산, 2015.

르페브르, 앙리(Henri Lefebvre).『공간의 생산』. 양영란 옮김. 서울: 에코리브르, 2011.

매시, 도린(Doreen Massey).『공간, 장소, 젠더』. 정현주 옮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소자, 에드워드(Edward Soja).「"시대정신"에서 "공간정신"으로」.『공간적 전회』, 외크르 되링, 트리스탄 틸만 엮음, 이기숙 옮김, 277-304. 서울: 심산, 2015.

스미스, 조나단(Jonathan Smith).『자리잡기』. 방원일 옮김, 서울: 이학사, 2009.
신일철.「정감록 해제」.『한국의 민속·종교 사상』. 이병도 외 옮김. 서울: 삼성출판사, 1978.
양승목.「조선 후기 십승지론의 전개와 '살 곳 찾기'의 행방」.『한국한문학연구』63 (2016): 97-133.
양은용.「풍수지리설과 정감록」.『종교문화연구』19 (2012): 312-324.
엘리아데, 미르체아(Mircea Eliade).『종교형태론』. 이은봉 옮김. 서울: 한길사, 1996.
_____.『성과 속』. 이은봉 옮김. 서울 : 한길사, 1998.
_____.『신화, 꿈, 신비』. 강응섭 옮김. 서울: 숲, 2006.
역사문제연구소 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엮음.『전봉준과 그의 동지들』. 과천: 역사비평사, 2017.
우윤.「19세기 민중운동과 민중사상-후천개벽, 정감록, 미륵신앙을 중심으로-」.『역사비평』2 (1998): 219-250.
윤이흠.『일제의 한국 민족종교 말살책: 그 정책의 실상과 자료』. 서울: 모시는사람들, 2007.
李覺鍾.「朝鮮の迷信と鷄龍山」.『朝鮮』8 (1924): 116-137.
이길구.『계룡산』. 대전: 대문사, 1996.
_____.『계룡산: 신도안·돌로서 금정을 덮었는데』. 대전: 대문사, 1997.
_____.『계룡산맥은 있다』. 대전: 누리문화사. 2001.
이능화.『朝鮮基督敎及外交史』下編. 京城: 朝鮮基督敎彰文社, 1928.
이민수.『순오지해제』. 이민수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1971.
이재환, 신민식.「조선시대 피난마을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부동산경영』14 (2016): 181-202.
이종필.「정감록과 조선 후기 하위주체들의 저항적 연대」.『우리문학연구』62 (2019): 29-53.
정진혁.「조선 후기 정감록 결사조직과 변혁운동」.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17.
정희정.「계룡산 설화에 나타난 민중 정서」.『역사민속학』20 (2005): 379-404.
조규태.「김천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 김산·개령·지례를 중심으로」.『동학학보』41 (2016): 7-39.
조동길.「1920년대의 계룡산 1」.『웅진문화』13 (2000): 110-128.

_____. 「1920년대의 계룡산 (2)」. 『웅진문화』 14 (2001): 26-44.
_____. 「1920년대의 계룡산 (3)」. 『웅진문화』 15 (2002): 161-181.
_____. 「1920년대의 계룡산 (4)」. 『웅진문화』 17 (2004): 32-56.
주경식. 「계룡산 신도안의 지리적 현황」. 『지리학』 19 (1984): 72-88.
지종학. 「하륜의 풍수와 신도안 입지의 비판적 검토」. 『한국민족문화』 53 (2014): 181-204.
최남선. 『조선상식문답』. 이영화 옮김. 파주: 경인문화사, 2013.
최원회, 성정락. 「계룡산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 및 경관 연구」. 『한국지리학회』 8 (2019): 261-287.
최원회, 이근화. 「계룡산 신도안 종교촌의 변천 및 종교구성 연구」. 『한국지리학회지』 8 (2019): 235-259.
최원회, 이근화, 성정락. 「계룡산 풍수지리의 특성 개관: 산지풍수 연구의 관점에서」. 『한국지리학회지』 7 (2018): 337-362.
최종성. 「정감록 백년왕국론과 조선 후기 위기설」. 『역사민속학』 61 (2021): 7-36.
_____. 「야나기타 분지로(柳田文治郎) 본 『진본 정감록(眞本鄭堪錄)』의 검토」. 『종교학연구』 40 (2022): 1-26.
최종성 외. 『(국역) 차충걸추안 : 도참을 믿고 생불을 대망했던 민중들의 심문 기록』. 최종성 외 옮김. 서울: 민속원, 2010.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계룡소고」(3판), 1992.
_____. 「신도고사」(재판), 1993.
탁명환. 『서울 계룡산』. 서울: 국종출판사, 1981.
한국종교학회. 『한국 신종교 실태조사보고서』. 서울: 한국종교학회, 1985.
한승훈. 「전근대 한국의 메시아니즘: 조선 후기 진인출현설(眞人出現說)의 형태들과 그 공간적 전략」. 『종교와 문화』 27 (2014): 27-55.
_____. 「조선 후기 변란의 종교사 연구: 추국 자료로 본 반란과 혁세 종교」.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9.
허남진. 「한국 신종교 성지의 양상과 특징」. 『한국종교』 42 (2017): 173-201.
현병주. 『批難鄭鑑錄眞本』. 서울: 우문관서회, 1923.
황선명. 『조선조종교사회사연구』. 서울: 일지사, 1985.
_____. 「복전 사상을 통해 본 한국 종교문화의 특질」. 『종교와 문화』 3 (1997): 205-216.
_____. 「십승지 고」. 『종교와 문화』 5 (1999): 157-171.

_____.『민중종교운동사』. 서울: 종로서적, 1980.

Chidester, David, Linenthal, Edward T. "Introduction." in *American Sacred Space*, edited by David Chidester and Edward T Linenthal, 1-43.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5.

Knott, Kim. *The Location of Religion*. London: Routledge, 2005.

Laclau, Ernesto. *New Reflection on the Revolution of our Time*. London: Verso, 1990.

Lane, Belden C. *Landscapes of the Sacred*. New York: Paulist Press, 1988

Lefebvre, Henri. *The Production of Space*. Oxford: Basil Blackwell, 1991.

Massey, Doreen. "Power-geometry and a Progressive Sense of Place." In *Mapping the Futures: Local Cultures*, Global Change, edited by Jon Bird et al, 29-69. London: Routledge, 1993.

Van der Leeuw, Gerardus. *Religion in Essence and Manifest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善生永助.『朝鮮の聚落: 前篇』. 京城: 朝鮮總督府. 1933.

_____.『(調査資料 第38輯) 生活狀態調査(其五)』. 京城: 朝鮮總督府, 1933.

村山智順.『(調査資料 第42輯) 朝鮮の類似宗教』. 京城: 朝鮮總督府, 1935.

_____.『朝鮮の風水」(民間信仰 第二部)』. 京城: 朝鮮總督府, 1931.

_____.『朝鮮の類似宗教)』. 京城: 朝鮮總督府, 1935.

「신도안 出入통제 忠南道警, 巫俗행위 등 막게」,『경향신문』, 1976.3.12.

Abstract

A Study on the Sacralization of Gyeryongsan in Chŏnggamnok

: Historical Power Struggles and Spatial Dynamics

Koh, Marie
Department of Religious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focused on the process of sanctifying Gyeryongsan(鷄龍山), prophesied as the future center of power in *Chŏnggamnok*(鄭鑑錄). *Chŏnggamnok*(鄭鑑錄), outlined the fate of the dynasty and the people, offers specific toponyms that provide spatial guidelines. Specifically, it was crucial to direct our focus towards actions that aspired to the advent of a new era through physical and ideological orientation to Gyeryongsan(鷄龍山). Notably, emphasis on the space was prevalent in various rebellion incidents in Chosŏn(朝鮮) Dynasty. Thus, there existed a universal resonance among those who embraced prophecies. Aligned with the problematics of the "spatial turn," which seeks to transcend the binary of time and space, this thesis investigated the dynamic space

within the history of power struggles surrounding Gyeryongsan(鷄龍山).

Chapter Ⅱ analyzed the intersections between religious studies and spatial turn, and categorized the spaces manifested in *Chŏnggamnok*(鄭鑑錄). Firstly, a commonality in the concept of space being heterogeneous was identified. Similar to a hierarchy between profane and sacred spaces, space underwent dynamic transformations based on social relationships. A second commonality lied in the influence of power in these distinctions. Applying this perspective to *Chŏnggamnok* (鄭鑑錄), there were four types of spaces mentioned in prophecies. A common thread emerged within the prophetic narrative of dynastic change, reflecting the competing power of the Chosŏn(朝鮮) Dynasty.

Chapter Ⅲ explored how space was utilized in physical struggles by examining the historical uprisings during the Chosŏn(朝鮮) era. Analyzing the Jeong Yeoryeop(鄭汝立) Rebellion in 1589, the emphasis on Gyeryongsan(鷄龍山) and Chŏngssi(鄭氏) as a strategy for power appropriation was confirmed. Subsequent rebellions also mimicked and transformed the motifs elevating the potential for royal authority. Conflicts around the Gyeryongsan(鷄龍山) were also reflected on the folk tales about moving the center of dynasty to the space. As a result of such struggles, there was a shift in the royal response from edification to a more direct attack on the space.

In Chapter Ⅳ, the struggle between Gyeryongsan(鷄龍山) and central authority persist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continued after liberation. The empirically proven prophecies of *Chŏnggamnok*(鄭鑑錄) became mystified as a means to remedy the absence of a nation. New religious movements constituting Sindoan(新都內) religious village aimed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heir sect by associating their leaders with the power of Gyeryongsan(鷄龍山). Perceiving such cohesion as a

potential threat, the central authority attempted to undermine the religious village by labeling it as superstitious or through forced relocations, aiming to dismantle the spatial concentration. Above all, the potency of Gyeryongsan(鷄龍山) as a sacred space is palpable even after the dissolution.

Essentially, Gyeryongsan(鷄龍山)'s sacralization resulted from diverse social actions, often sparking power struggles and ideological tensions that imbued the space with unique meaning. This thesis holds value in revealing the intricate power dynamics underlying sanctity, spotlighting spatial dynamism. Furthermore, it lays the groundwork for reshaping *Chŏnggamnok*(鄭鑑錄) research, emphasizing space's role and expanding its relevance to the study of Korean prophecy and broader religious spatial inquiries.

keywords : Chŏnggamnok(鄭鑑錄), Gyeryongsan(鷄龍山), sacralization, spatial turn, power struggles, spatial dynamics
Student Number : 2020-23156